

# 리아후나

표지 이야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8쪽**

마지막 날의 공포와 승리, 18쪽

청소년들에게 외설물에 관해  
말하는 방법, 34, 38쪽

활동: 세상에서 시온은 어디에  
있는가? 친8, 친12쪽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은 아이오와 시티의 아이오와 스테이크 및 다른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이 위대한 후기의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던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오와를 기억함, 8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콧,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무지,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더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드, 캐리 카스텐,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라, 비버만 플슨, 리처드 엠 룬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신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김벌리 펄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브리트리니 존스  
빈,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베틀,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틴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켈달 제이 파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496호, 제44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박 훈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장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말레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메리카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디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07 Vol. 31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숨겨진 뺨끼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14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셜리 알 클라인**
- 18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 26 주님의 비유
- 38 외설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댄 그레이**
- 42 후기 성도의 소리  
개척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넬 존슨**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 48 애독자 편지

**표지**

앞: 사진 촬영: 라일리 엠 로리머, 뒤: 사진 촬영: 라일리  
엠 로리머; 손수레 사진 촬영: 웬들 시 앤데슨

**친구들 표지**

그림: 제리 톨슨

26 주님의 비유



18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의 제언은 반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를 기억함**”, 8쪽:

가족들에게 그들이  
개척자들처럼 집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묻는다. 그

여행에는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할까? 여러분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14쪽: 가정을 더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둘째,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후식을 먹는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얻는 영적 및 물질적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18쪽: 가족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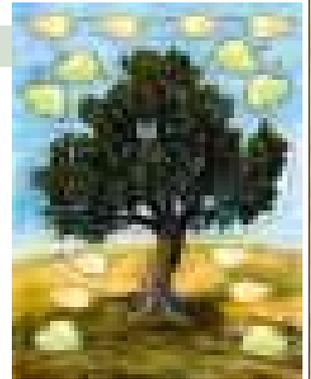


복사금지

**사랑을 바라봄, 리 유달 베니언 그림**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07~1995) 회장은 어머니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참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일상의 영웅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 시간, 밤낮으로 아픈 아이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특별한 용기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랑을 주고 보살피는 어머니들 말입니다.” (“진정한 위대함”,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9쪽)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만 반지를 찾으며,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생각해본다.



친4 가족의 신앙

### 청소년

- 8 아이오아를 기억함 캐롤라인 에이치 벤즐리
- 30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 34 외설물과의 싸움 익명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족의 신앙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악한 영향력에 대항함
- 친8 시온으로 집합함
- 친10 이제 됐다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성전의 축복 폴 이 켈리커 장로
- 친16 색칠하기

### 8 아이오아를 기억함



친8 시온으로 집합함

소망들이 실현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토론한다. 신앙에 관한 경전 구절을 읽는다.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기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미래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한다.

####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30쪽: 가족 중 한 명에게 자신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 예를 들면, 아기, 역사적인 인물 또는 경전상의 인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도록 한다. 다른 가족들이 그 인물을 알아 맞게 한다.

엘 톰 페리 장로의 해병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언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가? 가족들이 좋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페리 장로의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친2쪽:

롤린스 자매들의 이야기를 라반의 집에서 늦쇠판을 가져오는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와 비교한다. (니파이전서 3~4 참조) 각 이야기에서 어떻게 용기를 볼 수 있었는가? 경전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이번 호의 주제들

친 = 친구들	성전, 친10, 친14쪽
가정, 14쪽	신권, 46쪽
가정복음, 7쪽	신앙, 45쪽
가정의 밤, 1쪽	예수 그리스도, 26쪽
가족, 14쪽, 친4, 친10, 친16쪽	용기, 친2쪽, 친6쪽
가족역사, 친4쪽	용서, 2쪽
개종, 42쪽, 친10쪽	육신, 38쪽
개척자들, 8, 42쪽	음란물, 34, 38쪽, 친6쪽
기도, 43쪽	의사소통, 46쪽
덕, 34, 38쪽, 친6쪽	일, 14쪽
말하기, 30쪽	재림, 18쪽
방문교육, 25쪽	지도력, 46쪽
비유, 26쪽	찬송가, 47쪽
선지자, 8쪽	책임, 14쪽
성내기, 2쪽	초등회, 친4쪽
성스러움, 25쪽	김볼, 스펜서 더블류, 친6쪽
성신, 43쪽	회개, 34쪽



제일회장단 메시지

# 숨겨진 썰기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19** 66년 4월,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장로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무엘 티 휘트먼이 쓴 “잊혀진 썰기”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저도 사무엘 티 휘트먼의 글을 인용한 후 제 삶의 경험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티 휘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해 겨울에 몰아친 얼음 폭풍은 그다지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물론, 전선이 조금 내려앉고,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다. 보통

큰 호두나무는 가지에 쌓인 얼음의 무게를 쉽게 견딜 수 있었다. 나무를 갈라지게 한 것은 나무 중앙에 박혀 있던 철제 썰기였다.

철제 썰기의 이야기는 현재 그 호두나무가 서 있는 농장에 사는 백발의 농부가 소년이었던 시절에 시작된다. 그 당시 계곡에는 제재소가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이주자들은 그 주변에 흩어진 연장이며 별난 장비들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소년은 넓고, 납작하며, 무거운, 길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이나 되고 힘껏 두드려 만든 벌목공의 썰기를 발견했다. [벌목공의 썰기는, 나무를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데, 톱으로 자른 자국에다 끼워 넣고 큰 해머로 두드려 그 틈을 넓힌다]. 이미



저녁 식사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대문 근처에 심어 둔 어린 호두나무 가지 사이에 썰기를 올려 놓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이나 혹은 그 쪽으로 갈 일이 있을 때 헛간에 갖다 둘 예정이었다.

소년은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성장했을 때, 썰기는 가지 사이에 약간 끼어 있는 정도였지만 그가 결혼하고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 받았을 무렵, 썰기는 나무에 단단히 박혀있었다. 탈곡 인부들이 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던 때에는 그것이 나무 속으로 반쯤 들어가 버렸다. ... 나무가 자라 그것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 겨울이 오고 얼음 폭풍이 몰아쳤다. 썰기는 여전히 나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겨울 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 세 개의 큰 가지 중 하나가 줄기에서 쪼개져 땅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균형을 잃은 나머지 부분도 쪼개져 떨어졌다. 폭풍이 지나간 후, 한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무에는 잔가지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이른 새벽 농부는 밖에 나가 호두나무를 잃은 것을 슬퍼했다. ...

그러다가 산산히 쪼개진 잔해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았다. '그 썰기' 그는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한눈에 나무가 왜 넘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썰기가 줄기 안으로 파고 들어 가지가 섬유질로 단단히 결합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sup>1</sup>

### 우리 생활 속의 썰기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숨겨진 썰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드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이들은 명예롭게 선교사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딸과 아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결혼하여 각자의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숨겨진 썰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레오나드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행사에도 그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며 친절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드가 어떤 이유로 복음이 회원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지 않고 현세에서 살았는지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오나드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원하게 되었으며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레오나드와 나는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 난 자네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자네를 알아 왔네. 내가 왜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네.” 그런 후에 그는 아주 오래 전에 그의 부모가 겪었던 경험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농장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마침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농부가 더 낮은 가격에 농장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며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소. 그래서 내가 이 농장을 소유하게 되면 잘 돌볼 수 있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레오나드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농장을 팔았습니다. 이웃이던 구매자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터라 그에 대한 신뢰가 그 농장을 그에게 팔도록 가족을 설득하는 데 한 몫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던 첫 번째 구매자에게 팔았더라면 돈을 얼마나 더 받았을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거래가 성사된 지 얼마 후에 그 이웃은 자신의 농장과 레오나드 가족에게서 구매한 농장을 하나로 묶어 가치를 최대화하여 판매가를 높인 후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레오나드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오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가족이 그 이웃에게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마침내 마음 속에 있던 큰 짐을 털어 낸 것 같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비극은 감춰진 뼈가 레오나드가 더욱 높이 비상하는 것을 막아 왔다는 것입니다.

#### 대신 사랑을 택함

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들은 모두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두 달 후에 죽었습니다. 가구 제작자였던 아버지는 소중한 자녀의 시신을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습니다. 음울한 장례식 날의 날씨는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 그 가족이 느꼈던 슬픔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관을 옮겼으며 가족이 뒤따라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수의 친구들만이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쁜 감독이 장례식을 잊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아버지는 관을 팔에 안고 가족들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족의 인품이 나빴다면 감독을 비난하며 나쁜 감정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비극적인 일을 알게 된 감독은 그 가족을 방문하여 사과했습니다. 표정에는 아직도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아버지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정신으로 포용을 하였습니다. 계속 분노를 야기할 감춰진 뼈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관용이 가득했습니다.

영은 강한 족쇄와 가리앗지 않는 약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고양되고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가족에게서 상한 감정과 용서를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쟁점이 무엇인가는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비난은 계속해서 상처를 드러냅니다. 오직 용서만이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17세기 초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용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실 무렵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sup>2</sup>

#### 용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단점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한 여인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종종 인용합니다. “저는 구원 받지 못해요. 제 삶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쳤어요. 제겐 희망이 없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한 사랑스러운 소녀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를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인생에서 오직 하나뿐인 아름다움이죠.”

“그 애가 곤경에 처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도와 줄 건가요? 용서하실 건가요? 여전히 사랑하시겠어요?”

“물론이죠!” 여인이 외쳤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 도대체 그런 질문은 왜 하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서랍장 위에 당신의 사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며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녀의 행복을 가로막는 감춰진 뼈기가 제거되었습니다.

위험한 시기나 시련의 때에 그러한 지식, 희망, 그리고 이해는 불안한 마음과 비탄으로 가득찬 가슴에 위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약전서 전체의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에 자각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희망의 빛에 의해 쫓겨나며, 슬픔은 기쁨에 굴복하고, 군중의 삶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명확한 지식과 함께 사라집니다.

한 마리의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구주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이 진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가르침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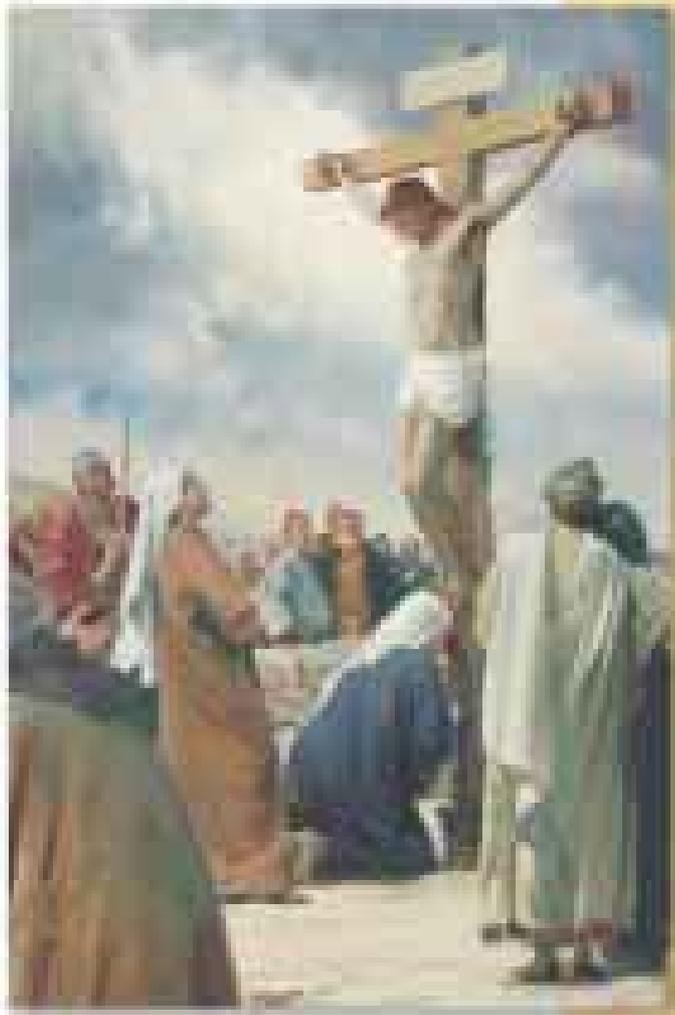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연합 통신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노인이 젊은 시절부터 뉴욕 주 캐니스테오 근교에 있는 방 하나짜리 오두막집에서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의 장례식에서 그는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어느 날 말다툼을 한 후로 그들은 분필로 선을 그어 방을 반으로 나누고 그 선을 넘거나 서로에게

## 잔

혹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실 무렵에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62년 동안 말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파괴적인 숨겨진

**자** 아, 자존심, 상심을 굴복시키고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때 우리가 나눴던 우정을 되살립시다.”

썰기입니까!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시구를 남겼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요,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sup>4</sup>

### 먼저 시작하기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너무나 완고한 나머지 진실한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아, 자존심, 상심을 굴복시키고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때 우리가 나눴던 우정을 되살립시다. 우리 시대의 분노와 불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 주지 맙시다.” 파괴만 하는 감춰진 썰기를 제거합니다.

감춰진 썰기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어떤 것은

것은 실망이나 질투심, 논쟁, 상상에 의한 상심 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썩고 굼아 마침내 파괴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90세가 넘는 한 훌륭한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뜻밖에도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전에 그들 부부가 이따금 이웃의 한 농부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자신의 농지로 가기 위해 그들 소유지를 가로질러 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미, 난 그에게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 걸어서 먼 길을 돌아가라고 말했지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 일을 후회한다고요.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에게 미안하단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글귀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말로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sup>5</sup>

물론경의 제3니파이에는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권고나 나오니다.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니라.”<sup>6</sup>

제게는 영웅과도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은 논쟁에서 비롯되어 악감정을 갖게 하고 마침내 죄책감과 후회가 따르게 합니다. 다른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유타 주 미드웨이라는 한 평화로운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 간격을 메움

여러 해 전에 로이 켈러와 그랜트 르문드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 다 땅을 경작했으며 낙농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약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후에 로이 켈러는 암으로 매우 위독해졌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프랜시스와 저는 로이를 방문하여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켈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생에서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랜트 르문드 사이에 생겼던 오해와 뒤따른 반목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저는 건조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자연 발화로 건조에 불이 나 건조며 헛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식어가는 불씨만 가물거렸습니다. 그 때 그랜트 르문드 집 방향의 도로에서 트랙터와 중장비의 불빛이 저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조팀’이 우리 집으로 들어서며 눈물에 젖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로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네. 아들들과 함께 왔어. 시작하자고.’ “그들은 함께 눈앞에 놓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잠시 갈라 놓았던 감춰진 썩기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을 했고 다음날까지 일했으며 날이 새자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로이 켈러와 그랜트 르문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같은 워드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두 가족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충실합시다. 그리하여 어떠한 감춰진 썩기도 마음에 품지 말고 이러한 구주의 권고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sup>7</sup> ■

### 주

1. Conference Report, 1966년 4월, 70.
2. 누가복음 23:34.
3. 마태복음 10:31.
4. *An Essay on Criticism* (1711), part 2, 525줄.
5.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hittier* (1892), 48.
6. 제3니파이 11:28~30.
7. 요한복음 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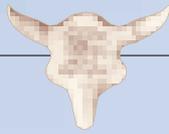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중 한 명에게 한 손으로 신발끈을 매도록 한다. 상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도움을 거부한 채 한 손만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지 토론한다. 문슨 회장의 말씀에 있는 서로 용서함으로써 삶이 향상된 사람들의 예를 나눈다. 다른 한 명에게 신발끈 매기를 돕도록 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간증한다.

2. 썩기와 나무의 이야기를 요약한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썩기를 나무에 두는 것과 어떻게 같은지 질문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가? 용서가 어떻게 치유로 이어지는가? 용서의 필요성을 설명한 문슨 회장의 말씀 중 한 부분을 읽는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모범을 따랐을 때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3. 방을 반으로 나눌 끈을 가져온다. 가족들을 끈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게 한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 끈을 치우고 다툼의 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고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제안한다.



# 아이오와를 기억함

시온을 향해 걸었던 개척자들과 손수레는 후기  
성도들의 이주와 교회 건설의 상징이 되었다.

## 캐롤라인 에이치 벤즐리

**18** 56년의 어느 여름날 아침, 16살 난 자네타 맥브라이드는 아이오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여행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기 수개월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에 도착하자 그들은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까지 기차로 여행했다. 서부로 향하는 철도는 그곳에서 끝이 났다.

아이오와시티에서 자네타의 가족은 여행의 마지막 부분-손수레를 끄는 1,300마일 (2,090km)의 행군-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여장을 꾸리는 후기 성도들과 합류했다. 자네타 맥브라이드는 마틴 손수레 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1856년에서 1857년 사이에 아이오와시티를 떠난 일곱 개의 손수레 부대 중 하나였다.

## 서쪽을 바라보며

150년이 지난 지금은 2006년 6월 9일이다. 또 하나의 손수레 부대가 아이오와시티를 떠나고 있다.

이번에는 아이오와시티 아이오와 스테이크의 청소년 70여명이 부대를 구성하고 있다. 개척자들의 복장을 하고 손수레에 짐을 가득 실은 이들은 아이오와시티 외곽의 물론 핸드카트

파크(손수레 공원-역자 주)에 모였다. 이곳은 정확히 150년 전인 1856년 6월 9일 최초의 손수레 부대가 여행을 시작한 곳이다. 서쪽을 바라보며 그들은 오래 전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개척자들을 생각한다.

아이오와 제1와드의 카메론 헨슨은 자신의 4대조 할머니인 자네타 맥브라이드를 생각한다. 열네 살인 카메론은 자네타가 시온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던 때와 비슷한 나이이다.

“할머니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종종 생각해요.”라고 카메론은 말한다. “후손들이 여전히 충실한 교회 회원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면 좋겠어요.” 카메론은 이 여행이 할머니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짧고 쉽다는 것을 알지만 조상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표할 기회에 감사한다.

페어필드 지부의 애나 세너 또한 개척자들을 기릴 수 있어 감사해 한다. 그녀는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서부의 변방으로 행군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애나는 자신의 표현대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신앙과 실제로 행하는 용기”를 지녔던 개척자들로부터 큰 힘을 얻는다.

이 여행은 아이오와시티 스테이크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할 훌륭한 기회이다. 그들의 조상 중에 손수레를 끈 개척자들이 있든 없든 이들은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개척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조상이다.

## 왜 아이오와인가?

오늘날 아이오와시티는 미국 중서부의 중심지이지만, 150년 전에 이곳은 서쪽 변경이었으며 철로가 끝나는 지점이었다. 1856년 아이오와시티 외곽에서 야영을 하던 초기 개척자들의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시티 스테이크의 10대들이 1856년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이 여행을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다. 이 길은 현재 주립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들이 현재에  
하는 여행은 단  
하루에

불과하지만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의 고난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반대쪽: 제프  
필모어가 자기 또래의  
개척자 소년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옷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 엘리슨 이글과  
서머 버치가 보넷을 써 보고  
있다.

대부분은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여행을 거쳤고 포장마차와 다른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은 턱없이 모자랐다. 아이오와시티의 주민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개척자들의 일지에는 아이오와 사람들이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브리검 영 회장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이 시온으로 오는 데 비용이 덜 들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자 이 성도들은 기꺼이 그 방법을 시도하고자 했다. 1856년 6월 9일 최초의 손수레 부대가 아이오와시티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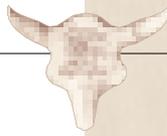
대부분의 손수레 부대는 힘든 여정을 마치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자네타 맥브라이드가 속했던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는 상황이 더 힘들었다. 두 부대 모두 때 이른 눈보라에 갇혀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들의 여행은 크나큰 희생을 요했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이 모든 손수레 부대 일원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시온으로 오게 한 동기였다.

2006년의 손수레 여행은 그 신앙을 기리기 위한 150주년 행사의 일환이었다. 아이오와시티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학술 심포지엄, 개척자 축제 및 타 종파를 아우르는 영적 모임 등과 같은 행사를 주최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손수레 부대의 개척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아이오와 사람들을 기념했다.

**선지자를 따름**

아이오와의 구릉지를 따라 걷는 긴 하루의 여행이 끝나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에머 폴리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신앙에 관한 구절인 이더서 12장을 다시





읽는다.

에머는 “저였다면 유타까지의 전체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위대한 일들이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라고 말한다.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집합하라는 브리검 영 회장의 말씀에 응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모범으로 인해 아이오와시터의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선지자를 더 쉽게 따르게 되었다.

카메론 헨슨 같은 청남이 선지자를 따르는 한가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이다. 그는 “개척자들과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여 선지자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청소년들에게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들은 그 다음 일요일의 기념 노변의 밤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이번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초기 개척자들 또한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걸으면서 그들의 지도자에게 가까워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하며 그와 같은 벅찬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에 다가서는 기분이에요.” 아이오와시터 제1와드의 스카일러 헨슨은 말한다.

여정을 마치고 아이오와시터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아직 할 일이 많다.

### 감사하다고 말하기

2006년 한 해



##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라일리 엠 로리머

교회 잡지

아이오와시터 제1와드의 꿀벌반 청녀들은 나이가 어려 손수레 부대 행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개척자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청녀 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이 청녀들은 손수레 축제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소녀들은 이 경험을 개인 발전 프로그램 활동의 하나로 정했다. 축제를 위한 개척자 복장을 갖추기 위해 소녀들은 각자의 보닛을 스스로 바느질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이야기, 1859년에 조지 로울리 손수레 부대와 함께 여행했던 페니 프라이의 이야기를 외우는 데 몇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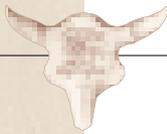
페니는 가족과 헤어져서 초원을 횡단하는 고난을 참아냈다. 어느 날 페니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자신의 손수레에 밀려 넘어졌다.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매들이 그녀를 물어주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오와의 꿀벌반 청녀들은 페니가 눈을 뜨자 그 자매들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한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페니는 여행을 계속했으며 나중에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된다.

“저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살아남은 페니가 얼마나 용감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강한 소녀였어요.”라고 서머 버치는 말한다.

“저는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던 페니가 존경스러워요.”라고 엘리슨 이글이 말한다.

축제일 아침에 서머와 엘리슨은 다른 꿀벌반 청녀들인 미란다 데키, 켈드라 도슨, 리사 아벨, 제나 아벨과 함께 그들이 존경하는 페니 프라이의 성품을 보여주었다. 그날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추운 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명량한 미소로 추위와 맞섰다. 모든 소녀들은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개척자 복장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페니의 이야기를 해 줄 준비가 되었다. ■





## 손수레 개척자들의 역사



다음은 손수레로 여행한 개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 브리검 영 회장이 후기 성도들이 손수레를 이용해서 시온으로 여행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손수레가

포장마차보다 저렴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1856년과 1860년 사이에 총 10개의 손수레 부대가 있었다.
- 성도들은 아이오와시티까지 기차로 왔다. 준비를 마친 후 10개 부대 중 7개가 아이오와시티에서 출발했다. 나머지 부대는 네브래스카 플로렌스에서 출발했다.
- 대부분의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은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왔다.
- 늦게 출발하여 이른 눈보라를 만난 윌리 손수레 부대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제외하고 다른 손수레 부대에서는 이동 중에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 손수레 부대의 개척자들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신앙은 굳건했다. 버커 부대의 프리실라 엠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손수레를 끌며 걷는 우리들을 조롱했지만 날씨는 화창했고 길도 좋았습니다. 나는 몸이 아팠으며 밤에는 모두가 몹시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이 시온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로이 알 하펜과 앤 더블류 하펜, 시온으로 향하는 손수레 부대 (1960)*

동안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시티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그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봉사 활동을 했다. 이것은 초기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 성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봉사할 기회이다. 아침 6시 30분이 이르게 느껴지지만 아이오와시티 제1와드의 마크 험버트는 그 전날의 여행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고 말한다. “손수레 여행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봉사가 쉬웠습니다.”

봉사하고자 열의에 찬 사람은 마크뿐만이 아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활기차게 보호 시설을 방문하고 경찰차를 세차하고 복지 시설에 식료품을 나르고 공원을 청소했다.

이러한 봉사는 초기 성도들을 도왔던 이 도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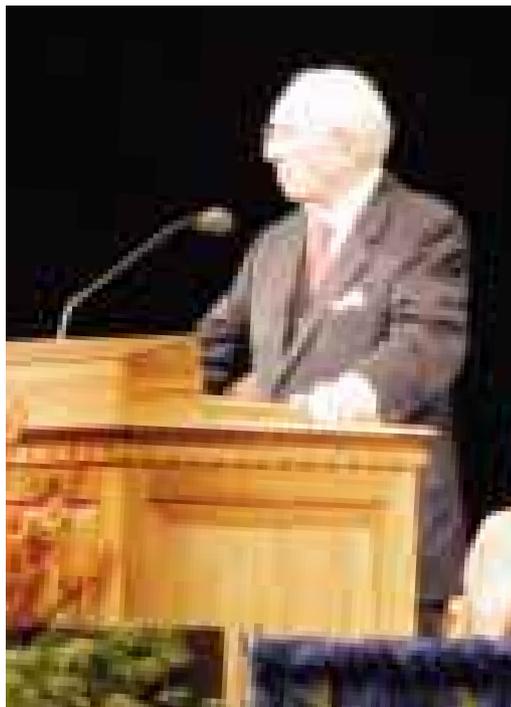
### 손수레 부대의 역사는 나의 역사

금요일에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토요일에 봉사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일요일이 즐겁기만 하다. (가족들과 함께) 기념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청년과 청년들은 그들이 얻은 손수레 여행의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든 비헝클리 회장의 말씀은 그들이 손수레 부대의 개척자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고무시킨다. “우리는 이 위대한 후기의 사업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른 개척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856년 아이오와시터를 떠났던 개척자들은 오늘날 아이오와시티 스테이크에 살고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고 힘을 얻을 것이다.

애나 세너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녀의 신앙은 자신이 옳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데 힘이 되어 준다. “저를 위해 개척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척자들의 경험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바로 저의 역사입니다.”라고 애나는 말한다. ■



##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이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한다.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지역 사회에서 봉사한 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가정에서 매일 하는 활동은 사랑, 봉사, 순종 및  
협동심을 실천할 기회를 준다.

**셜리 알 클라인**

브리검 영 대학교, 가정생활학부 부교수

**개**척자들이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을 하고 거친 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앤 하우얼 버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웨일스에서 이민 와서 결혼하고 1863년 여름에는 북부 유타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어머니로서 그녀는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계단 밑으로 기어 내려오는 방울뱀을 밀방망이(밀가루 반죽을 밀 때 사용하는 방망이-역자 주)로 죽였다. 그때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마루에는, 아니 땅바닥에는 아기가 있었다. ... 나는 너무나 겁에 질렸다. ...

“... 며칠 전, 잠자는 아기의 얼굴에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쫓고 있다가 ... 아이를 향해 기어오는 타란툴라 거미를 발견했다. 나는 빗자루 끝으로 거미를 밀어내다 거미가 빗자루에 들러붙자 황급히 불 속에 집어 넣었다.”<sup>1</sup>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거미와 뱀에 대한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영향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독거미와 뱀은 도덕적인 것으로서 아주 교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는 낙태, 가사 일 거부, 가족 식사 시간 유지의 어려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뀐 역할, 이혼을 통한 결혼 생활의 붕괴, 동거 생활, 동성끼리의 결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침략자들을 가사 도구로 쳐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많은 밀방망이나 빗자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 가정생활의 쇠퇴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흔히 미래에 대한 목표를 화려한 경력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물론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오늘날엔 직업 상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여성들에게 있어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여성의 자연스럽고 소중한 삶의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그 메시지는 어머니들이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현대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가정은 흔히 여성들이 벗어나야 하는 곳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철학자들은 여성들에게 가정의 의무가 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게 하며, 남자와 여자는 가정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밀방망이와 빗자루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편리함은 가정을 보살피는 몇 가지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반면 가정생활의 쇠퇴를 불러 왔습니다. 우리는 가족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가정 활동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유혹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작가인 쉐릴 멘델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외부에 있는 단체로 눈을 돌릴 때 [우리의] 기술과 기대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sup>2</sup>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가정을 강화시키고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많은 사회적 제약이 지금은 하나 둘씩 붕괴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 철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sup>3</sup>

### 우리 가정과 가족을 보호함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 가정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가정의 성스러운 본질과 목적을 재발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스러움에 있어 성전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정뿐이다.”<sup>4</sup> 우리 가정이 성전에 비유된다면 가정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사전은 성스럽다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나 물체나 목적을 위해 성별되거나 헌납된, 모독적이거나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폭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정당하게 면제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sup>5</sup>

식사 시간, 음악, 여가 활동, 세탁 및 여러분의 집과 뜰을 보살피는 일과 같은 매일의 가정 활동에 이 성스럽다는 개념을 적용해 보십시오. 일상의 활동들은 더 높은 목적을 갖게 되며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 활동들은 우리에게 좋은 인성과 윤리적인 행동을 계발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매일 함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진리에 대해 배우며 정직과 인내, 자비로운 사랑과 형제간의 친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하는 일과 여가 활동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선택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풍성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또는 룸메이트는 해야 할 일을 보고 그 일을 기쁘게 행함으로써 가정에 기여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단순해서 뱀의 재앙이 덮쳤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그들은 단지 장대 위에 매단 돛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것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1:8~9 참조) “그 방법이 간단하였으므로 인하여 곧 쉬웠으므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나이다”(니파이전서 17:41)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하는 활동들은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하고 빈번하며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을 일으켜 세울 중요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족 식사 시간을 일상의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부엌에서 간단히 먹거나 혹은 자동차에서 간단히 때우거나 가장 가까운 식당에 가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는 대단히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식사를 함으로써 자녀들이 더 나은 영양분을 섭취하고<sup>6</sup> 심리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위험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sup>7</sup> 또한 긍정적인 환경에서 하는 가족 식사는 건강에 해로운 체중 조절 습관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sup>8</sup>



**가** 장 어린  
자녀조차도  
세탁물을 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복잡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간단한 활동이 가족을 가깝게 만듭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각자의 하루가 어땠는지 알기 위해 식사에 온 정성을 다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이야기나 친목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바깥의 산만함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식당에서 하듯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대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정기적인 가족 식사로 인해 자녀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가 저무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에는 식사와 그 밖의 축복들에 대해 기도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가족 식사 시간이 격식 없이 복음 토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가족 활동이 현세적, 영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현세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29:35 참조) **현세적**이란 말은 어느 시간 동안만의 지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가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현재와 내세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라”<sup>9</sup> 때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그 속성들을 계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품성을 키우는 가정에서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가족 연구가인 에놀라 에어드는 가정에서 일하는 방법,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 예절과 도덕 및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배우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sup>10</sup> 부모의 교화 없이도 자녀들은 영리해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교화가 안 되어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sup>11</sup>

일상생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장 어린 자녀조차도 세탁물을 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양말 짝을 맞추고 색깔을 분류하거나 수건을 접거나 해서 자신들이 달성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복잡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보람있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 우리 가정을 밝힘

가족의 의무 이행은 순종을 통해 빛과 진리를 얻는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빛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잘 이행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부모와 자녀는 작은 일에서 순종과 정확성을 배울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준비를 보다 잘 하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될 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본 지침 가운데에는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교리와 성약 20:47, 51)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몇몇 교회의 지도층 형제들이 가족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93:41~50 참조) 오늘날, 우리는 가족 선언문을 보고 다시금 우리의 성스러운 가족의 의무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의무를 흔히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 경전 읽기 등에만 국한시켜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 먹고 입을 활동들이 사랑과 봉사와 순종과 협동을 실천하게 해 주는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이 단순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즉 가족 식사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빛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교리와 성약 50:24), “[나는 충실한 자에게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줄 것임이요, 또 이로써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또 너희를 입증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98:12)

작은 것들에서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큰 것들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는 성스러운



것으로서, 영적으로 발전하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평생 탐구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가정환경은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는 반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05년 4월,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말씀에서

### 주

1. Sophy Valentine, *Biography of Ann Howell Burt* (1916), 24~25쪽에서.
2. *Home Comforts: The Art and Science of Keeping House* (1999), 7~8쪽.
3. “가족은 영원함”,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5쪽.
4. Bible Dictionary, “Temple,” 781쪽.
5. *The World Book Dictionary* (1984), “sacred,” 1830쪽.
6. Tami M. Videon 및 Carolyn K. Manning, “Influences on Adolescent Eating Patterns: The Importance of Family Mea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3년 5월, 365~373쪽 참조.
7. Marla E. Eisenberg, Rachel E. Olson, Dianne Neumark-Sztainer, Mary Story 및 Linda H. Bearinger,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2004년 8월, 792~796쪽 참조.
8. Dianne Neumark-Sztainer, Melanie Wall, Mary Story 및 Jayne A. Fulkerson, “Are Family Meal Patterns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4년 11월, 350~359쪽 참조.
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10. *Taking Parenting Public: The Case for a New Social Movement*, Sylvia A. Hewlett, Nancy Rankin 및 Cornel West (2002) 편, 13~28쪽에서의 “On Rekindling a Spirit of ‘Home Training’: A Mother’s Notes from the Front” 참조.
11. “On Rekindling,” 19쪽.



#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현재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안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두려움이 더욱 커졌으며, 국제적인 사건들과 함께 거의 어디서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러라는 말에 더욱 경각심을 높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대다수가 세상의 종말과 그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관련하여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구주의 재림의 시각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재림과 관련되어 예언된 것입니까?”

실제로, 9·11 사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정직하고 신앙심 깊은 선교사가 “홀런드 장로님, 지금이 마지막 날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진지함과 그의 눈에 서려 있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지만 실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주의 약속된 재림은 182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가운데서 한해 한해를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악수를 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을 어떤 맥락 속에서

정리하며 안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가 실제로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내게 미래가 있을까요? 내 앞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은 ‘예, 물론입니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승리의 재림과 그에 따른 중대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36 참조)

우리는 표적을 지켜보아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충실히 살아야 하며 우리 모두가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일들이 미래에, 어디에선가 일어난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충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저 미래에 직면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받아들이고 만들어 나가며, 즉 미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기회에 대해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위, 맨 위에서부터: 2006년 12월, 건축 중에 있는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 2006년 10월 22일에 헌납된 핀란드 헬싱키 성전, 2002년 6월 27일에 헌납된 일리노이 나무 성전. 오늘날 124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11개가 더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다.

### 신앙을 지니고 두려워하지 않음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여러분께 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과 충실한 삶이 두려움과 두려움의 아비(사탄)로 인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앙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다만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과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신앙과 결단력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고, 생활하며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저 미래에 직면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받아들이고 만들어 나가며, 즉 미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기회에 대해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뤄주실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분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로를 주는 두 성구

다음의 두 성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첫 번째 성구는 교리와 성약 101편에 있습니다. 이 계시는 미주리 주에 집합했던 성도들이 끔찍한 박해를 겪고 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태였던 이때가 교회에 알려진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기였으며, 그야말로 “공포가 가득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려운 시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관하여는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시온은 비록 그 자녀가 흩어질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움기우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돌아와 그들의 기업에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의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우리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01:16~19)

그러므로 시온에 관하여는 마음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온에 관해 우리가 받은 “마음이 청결한”(교리와 성약 97:21) 자라는 가장 중요한 정의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킨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이 시온을 건설할 때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언급할 다른 성구는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즈음에 공포와 혼란과 박해에 직면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멸의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주신 마지막 권고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그러므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신앙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어진 다른 약속과 예언들, 모든 위안 주는 것들을 상기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충만하게, 더욱 담대하고 용기있게,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38:9)

### 세 가지 예언적 인용문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해 제가

**2** 천 여년 전, 구약 시대에는 한 개의 성전이  
있었으며 몰몬경 시대에는 두 세 개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의 말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입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졌던 목표이며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열왕들이 특별한 기쁨을 느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환희에 찬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하고 환희에 찬 기대를 걸고 우리 시대를 노래하고 기록하고 예언하였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일으키기 위하여 [택하신] 총애 받은 백성들입니다.”<sup>1</sup>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님이 단언하신 다음과 같은 유사한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기 성도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 그들의 의무는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급된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계명에 의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사명을 성취합시다.”<sup>2</sup>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현대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전에 있었던 모든 추수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제 이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로서 악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신 많은 봉사를 행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위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지식, 그리고 영원한 진리라는 영광스러운 은사를 누리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하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충실하십시오.”<sup>3</sup>



각 시기를 대표했던 우리 선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공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의 불길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붙잡는 기회와 축복, 특히 책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에서 초기의 선지자, 제사, 열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환희에 찬 기대를 걸고 ... 우리 시대를 노래하고 기록하고 예언했다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그토록 환희에 찼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포나 비극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급된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핑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위험을 통해, 어쨌든, 우리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고 훌륭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특히 충실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는 이 시대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인해 겸손해지며 영적으로 고무되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세상, 그분의 교회, 그분의 지도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분명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충실한 자인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참으로 큰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우리가 받은 도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약 5만 3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숫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귀환하는 선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자들이 있으므로 이 숫자는 2년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2천 여년 전의 구약 시대에는 한 개의 성전이 있었으며 몰몬경 시대에는 두세 개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족 역사를 작성하여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의 기적을 더해 보십시오. 총관리 역원들이 전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전하게 해주는 현대의 교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곳에 위성 방송을 통해 경전의 말처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84:62 참조)

교육, 과학, 기술, 통신, 교통, 의학, 영양 및 계시에 이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요소들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모로나이 천사가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인용하며 반복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인류가

모든 학문 분야에 비취질

빛으로 축복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갖게 될 이 모든 축복을 생각해 보고 잠시 멈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sup>4</sup>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 혼인 잔치

경륜의 시대에 대한 이 견해에 또 다른 요소를

**후** 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그분의 영을 부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인류는 모든 학문 분야에 비취질 빛으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마지막이고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시대에 정점을 이루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초기의 교회 회원들이 받았던 책임과는 다른 구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교회를 준비하여 친히, 승리의 영광 속에서, 왕 중의 왕으로서 복천년에 그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합당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안아 주시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교회나 교회 회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스러운 시간에 그분께 보여드리는 삶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신랑(구주)을 위해 신부(교회)를 준비시키고 혼인 잔치에 초대 받기에 합당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마태복음 22:2~14; 25:1~12; 교리와 성약 88:92, 96 참조)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날, 즉, 주님께 그분의 교회에 대한 발표를 할 그때를 위해 저의 삶을 준비하고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할 엄청난 의무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누가 그 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교회 회원답게 보고 행동해야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된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를 빨리 그리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힐클리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저 이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로서 생활해야 합니다.” 지금은 후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후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함

이 후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불길한 후기의 경고와 예언이 성취되는 힘든 시기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자들은 강한 바람과 우박과 회리바람 속의 악마의 화살을 잘 견디겠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확실한 출처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맨서 5:12)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슬픔이 있지만 그분 안에는 악도, 해로움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후기에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 가운데는 DNA 연구,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가족 역사 연구 및 진보된 의학 치료법 등이 있다.



**가장 훌륭한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강한 가족을  
만들고, 개인의 영성을  
키우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희생을 통한 속죄와 공덕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신 있고 낙관적으로, 신앙을 가지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되, 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후기 성도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심한 걱정이나 결코 자신을 파괴하는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4, 36)

“아버지께서 ...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 담대하라 ... 왕국은 너희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8: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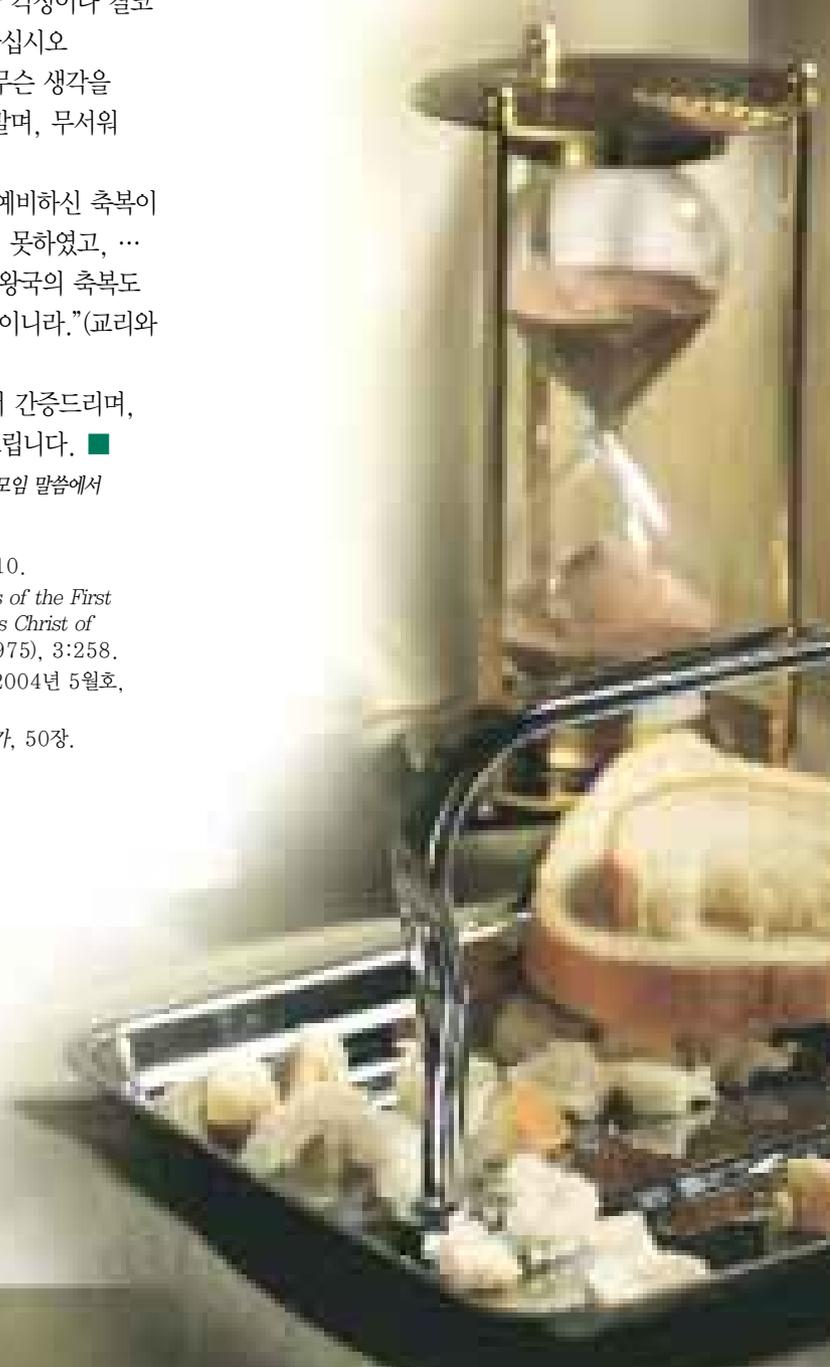
이 일들의 참됨에 대해 사도로서 간증드리며, 여러분에게 저의 축복과 사랑을 드립니다. ■

2004년 9월 12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주

1. *History of the Church*, 4:609~610.
2.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5), 3:258.
3.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4쪽
4.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50장.

그 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교회 회원답게 보고 행동해야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거룩함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거룩함은

영혼의 힘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서는 신앙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며, 그 마음은  
불경스럽고 합당치 않은 것들로부터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그른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 우리는 다른 이유보다도 개인의  
거룩함과 우리 가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과 더불어 지상에 있는 또 다른  
거룩한 곳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섬으로써 주님께  
대한 거룩함을 찾는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그리고  
각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거룩한 곳에 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2, 67~68쪽)

**디이터 에프 우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적용하여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다시 말해서

우정, 취업, 사업 및  
오락에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 우리의  
발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욱 “그분 앞에서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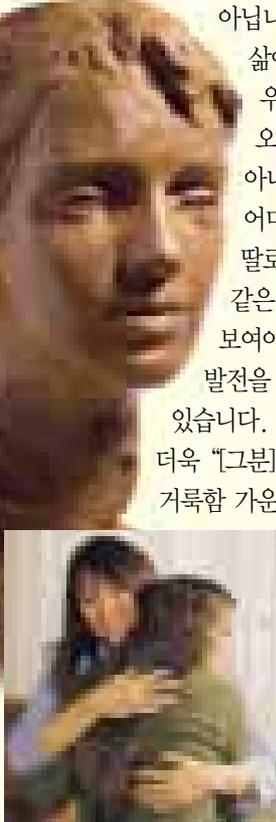
거룩함 가운데 행할”(교리와  
성약 43:9) 때,

주위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발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  
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2쪽)



##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 중 누가  
소중히 여겨지고 보살핌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배우길 원치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사랑  
표현, 한 번의 사려 깊은 행동, 한 번의  
기꺼운 손길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의  
메시지는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아니라 매일 이러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영혼을 넓혀야 한다’ 고  
가르쳤습니다.”(“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10쪽)

**보니 디 파킨, 자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약-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결속력 있는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침례 시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듯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겠다고 성약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우리는 순종적이고, 이기심이

없고, 충실하고, 영예롭고, 자비심을  
갖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기로  
성약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거룩한

마음’(교리와  
성약 46:7)으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성약의 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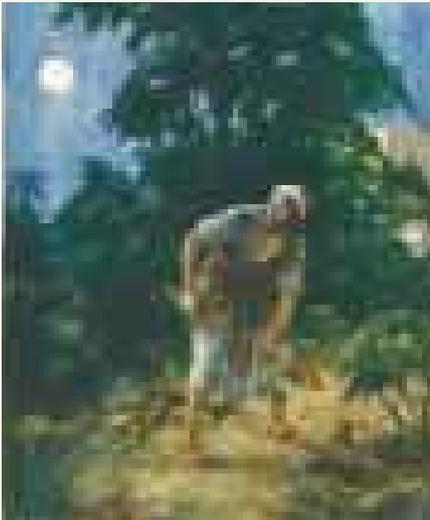
가져다주는 산물입니다. ... 거룩함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거룩한  
마음으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3, 105쪽) ■



# 주님의 비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숨기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런 방법으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예지에 따라서 종교적인 진리를 배우게 된다.



© PROVIDENCE COLLECTION

위: 달란트의 비유, 헨리 콜러. “그 주인이 [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마태복음 25:26, 28: 14~30절 참조)





**왼쪽: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조지 소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  
 “더러는 ... 돌밭에 떨어지매 ...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마태복음 13:3~5, 6~8; 3~23절 참조)

**위: 잃은 양을 구함, 미너버 케이 타이쳐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15: 4~7)



**위: 그 중의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월터 레인.**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마태복음 25:1~4, 8~9; 1~13절 참조)

**오른쪽: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제임스 티스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무고]-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24~28, 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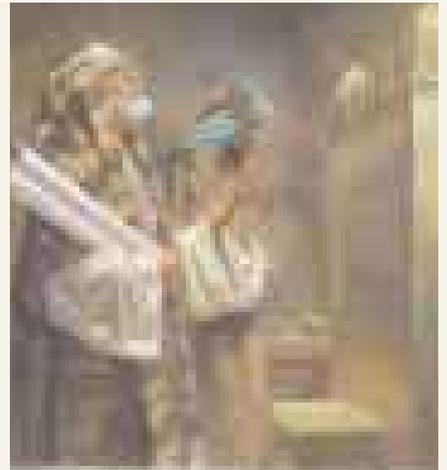
**오른쪽: 바리새인과 세리, 로버트 티 배리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0~11, 13~14;  
9~14절 참조)



**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구스타브 도레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33~34;  
25~37 참조)

**왼쪽: 탕자,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11~32절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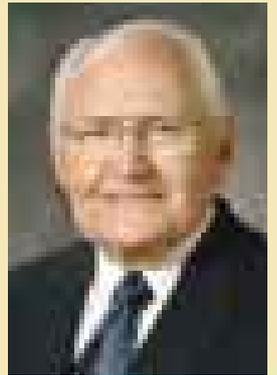
A close-up profile of a man's face, looking towards the right. He is holding two sticky notes in front of his chest.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yellow light.

저속한

지적인

#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자신이 어떤 계층과 부류에 속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 약전서 상의 위대한 인물 중 언제나 특별히 제 마음을 끄는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것들을 극복하며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과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교훈을 구주에 대한 재판과 구주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시간 동안의 그분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34~35)

## 우리의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냄

그런 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으며 베드로는 구주와 함께하는 자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주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시련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민감한

배려하는

무례한



**베드로의 말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반영하며 우리의  
 배경과 생활 방식을 나타내  
 보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내적  
 감정까지도 나타냅니다.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 [나타낸다] 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태복음  
 26:69~75).  
 여권 사진과 서명이나 지문이 개인을  
 식별하듯이 베드로의 말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계층과  
 부류의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반영하며  
 우리의 배경과 생활 방식을 나타내 보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내적 감정까지도  
 나타냅니다.

### 충격적인 말

오늘날, 역사상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불경스럽고 상스러운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는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해병대 신병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해병대 동료들의 언어는  
 여러분이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갓 귀환한 선교사로서 저는 제  
 언어 수준을 그들보다 높게 유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단순하고 흔한  
 욕설까지도 하지 않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최종 자격 점수를 위해 소총  
 사격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90, 180 그리고  
 275미터 지점에서는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50미터 지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  
 것은 적당한 점수였습니다. 명중은 아니어도  
 과녁을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특등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월등한 특등 사수가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450미터 발사대에 올라서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발을 발사하자 총의 반동이  
 어깨에 쏘였습니다. 물론, 깃발이 흔들리고-저는  
 과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특등  
 사수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 입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말이 튀어 나왔습니다. 나의 이 충격적이고  
 후회스런 말에 갑자기 모든 사격이 중단되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그 위치에서 사격을 하고 있던 다른 해병이 제가 사용한 말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의 표준을 해병대에서도 지키겠다고 결심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언어의 사용에 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1)

부적절한 언어를 삼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대체 용어를 찾게 됩니다. 때때로 그 용어들은 속어와 아주 유사하므로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그 단어들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단어는 우리의 어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찬식에서 귀환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스라쳐 놀라기도 합니다. 그들은 선교 지역에서 배운 저속한 말의 대용어인 단어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들이 올바른 단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선교사업 중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잘 알게 해줍니다.

### 언어를 향상시키는 방법

불경스러운 언어나 저속한 언어 사용해 왔지만 그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분들께 이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여러분의 어휘에서 그와 같은 말을 지워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2. 욕설이나 그 대용어를 무심코 입 밖에 냈을 경우, 마음 속으로 그 욕설이나 대용어가 없는 문장을 다시 만들어보십시오.

3. 새로운 문장을 큰 소리로 반복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저속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키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지침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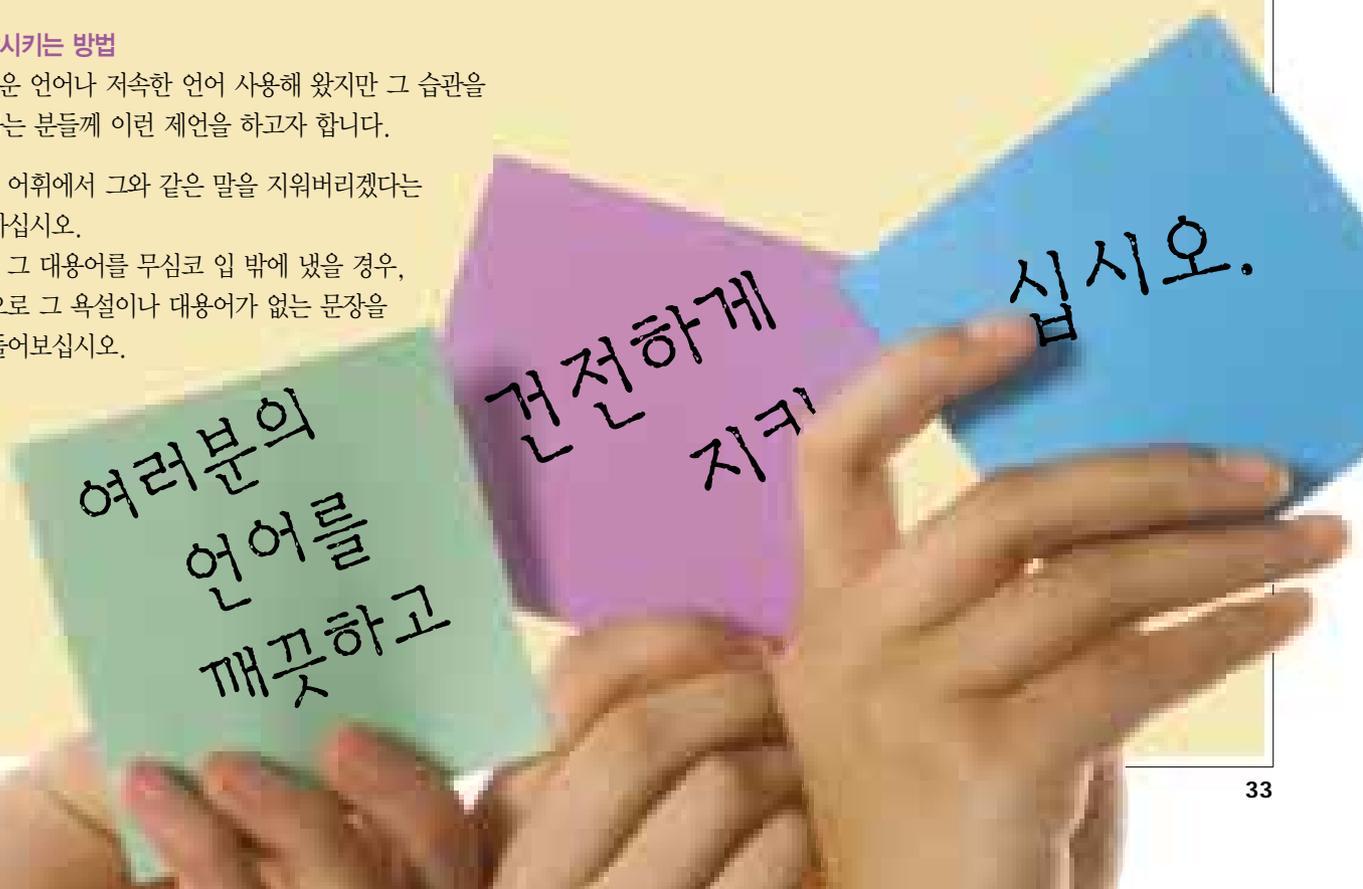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 29~30)

여러분의 언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지키겠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향상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45)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기를 여러분 모두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





### 피난처를 찾음

“너무 쉽게 외설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고  
탈출구도 없다는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광풍이 일며  
폭설이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폭풍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한 옷을  
입고 피난처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1쪽.

# 외설물과의 싸움

익명

**내**가 처음으로 외설물을 접한 것은 겨우 열살 때였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컴퓨터를 켜면서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뭐냐고 묻자 친구는 “여자들의 화끈한 사진”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나의 종교에 위배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걸 뭐.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말했다. 나는 보기를 거절하고 친구 집을 나왔다.

이 년 후 나는 또다시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다. 예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 쪽에서 유혹과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친구가 전에 보여주었던 것을 보겠다고 동의했다. 이것은 내 일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는 날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

나는 우리 집 컴퓨터에서도 계속 외설물을 보았다. 컴퓨터는 은밀한 곳에 있었지만 누가 오면 이것은 팝업창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변명을 둘러댔다.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죄책감을 무시했으며 외설물 보는 것을 중단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자신을 확신시키며 외설물에 대해 경고하는 교회의 어떤 권고도 무시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외설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여자를 보는 방법도 변하기 시작했고 내 생각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한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은 외설물을 보는 것이 어떻게 청남들의 신권 행사를 합당치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내게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감독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불행히도 나의 결심은 얼마 가지 못했다. 나는 매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단단히 중독된 나는 또다시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도 많이 짓게 되었다. 교회에는 계속 나갔지만 집중을 못했으며, 사탄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성령의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세미나리에서는 경전을 읽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이스카우트 기록부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학교에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며, 나는 하지 말라고 배운 모든 것을 하게 되었다.

기도와 자제로 중독을 극복하겠다고 노력한 지 5년이 지나갔지만 나는 그 중독을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부모님께 외설물 문제에 대해 고백하면서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아무리 열심히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계속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 예방

외설물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책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다음의 권고는 중독을 향한 첫걸음과 그것에 관한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외설물과 투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외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난다.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신중하게 택한다.
- 부모덕에 관해 보여주거나 말하는 매체는 그 시청 분류 등급이 어떤 것이든 꺼버리는 용기를 가진다.
- TV와 컴퓨터는 집안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놓아 둔다. 혼자 있을 때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 인터넷 접속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외설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필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외설물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한다. (34쪽 히클리 회장님의 인용문 참조)
-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이 메일은 결코 열지 않는다. 우연히 웹사이트에서 외설물을 접하게 되면 즉시 컴퓨터를 끄고 어른에게 알린다.
-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성신은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경고해 주실 것이다.

## 회복

외설물의 덫에 걸려 있을 경우, 여러분은 회개하고 그 중독을 극복해야 한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의 도움을 받아 회개를 통해 해결한다. LDS Family Services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 **합리화를 중단함.** 중독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중단해야 한다.
- **중독의 주기를 끊음.** 다음과 같은 중독 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다.

단계 1: 집착-성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한다.

단계 2: 습관화-외설물을 보도록 이끄는 일상적인 습관에 빠짐.

단계 3: 외설물을 보거나 사용함.

단계 4: 절망.

네 개의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고리를 끊음으로써 외설물을 보거나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부분을 단절시키는 방법들이다.

1. **생각과 욕망을 억제함.** 불순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 금식,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한다. 불순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곧 영적인 음악을 듣거나 경전 구절을 외우거나 건전한 것에 관해 생각함으로써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을 대체한다.
2. **일상적인 일에 변화를 줌.** 산책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친구와 이야기 하거나 운동 연습을 하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색다른 일을 한다.
3. **기회를 없앴.**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외설물을 보는 것을 막는다.

4. **절망을 대신할 희망을 간구함.** 실수가 여러분을 좌절시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 절망 대신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중독을 극복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가 있다.

- **전문적인 도움을 구함.** 심각한 중독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여러분을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가장 가까운 LDS Family Services 사무실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www.ldsfamilyservices.org](http://www.ldsfamilyservices.org)를 방문한다. 교회 소책자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물품번호 00460 320) 또한 외설물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실려 있다.



### 유혹을 피함

“외설물은 사악한  
부도덕을 불러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탄시킵니다. 외설물은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진시킵니다. 외설물은 수령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접하는 순간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정복되어 그것이  
가혹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설물의  
수령에서 빠져나오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면, 그것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전진하라”,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2쪽.



없어요.”라고 말씀 드렸다. 비록 이  
문제가 그분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부모님께서서는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셨다. 부모님은 감독님을  
만나보라고 권고했다.

부모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독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감독님을 친구로 생각했으므로  
그분이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를 아는  
것이 싫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감독님을 만났으며, 그분이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가에 놀랐다. 감독님은  
전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고 오직 나를 돕기를 원하셨다.

내가 감독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나의 삶은 곧  
나아졌다. 외설물 중독에 대해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세미나리 상과 스카우트  
기능장 및 배지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모두 반납했다. 또한  
학교 선생님에게도 내가 부정 행위를  
했다고 고백했다.

감독님의 도움으로 나는 감독님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58: 43 참조) 예전에는 나 혼자서 이  
중독과 싸웠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감독님과 함께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편이란 점이였다. 이분들은 유혹을 이기는 강한  
방패가 된다.

우리는 컴퓨터에 외설물 차단 기능을 설치하고 성스러운  
것들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까운 곳에 성전이나 선지자의  
사진을 놓아 두기 시작했다. 매일의 경전 공부가 나의 영적인  
방어벽을 설치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외설물을 보고 있었을 때는  
나의 경전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보고 듣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  
했다. 많은 TV 쇼와 영화는 부도덕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부도덕이 하나님의 적(모사이사야  
3:19참조)인 육적인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육적인  
인간에서 벗어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죄에 대해 내가 겪은 후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모든 고통을  
겪으신 구주일 것이다.

이제 나는 외설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속죄를 통해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생 동안 끊임없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악마는 여전히 나를  
유혹하려 하지만 구주를 내 편에 둔다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던 긴 중독의 시작이 한 순간에  
생겨났다는 것을 나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쓸데없는 호기심이 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었지만 나는 여생  
동안 이 중독을 피하겠다는 동기 부여를  
받는다. 나는 선교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고, 중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 ■

# 외설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부모와 신권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외설물의 영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위험을 알고 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댄 그레이  
임상 사회 복지사

**오** 늘날의 청소년은 노골적인 영상, 즉 대부분이 육욕적이고 호색적인 것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주제에 관해 자녀들과 토론하기를 주저하거나 쑥스러워 합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나 유해한 매체로부터 배우게 되어 종종 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순결의 법을 가르쳐서 부도덕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들과 신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청소년들과 인간의 성의 성스러운 속성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이 이 성과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억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오용된 성만을 가르친다면 청소년들은 불안해 하고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무심코 전할지도 모릅니다. “성적인 생각과 느낌은 나쁘고 사악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아껴두라.” 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성적인 느낌 또는 충동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나 또한 나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기 가치의 비하, 합당치 않다는 느낌 및 수치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아 청소년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이러한 혼란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우리 몸과 출산의 성스러운 면에 관해 말해 주면, 그들이 외설물의 영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우리의 몸: 그것의 신성성

여러 매체들은 종종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 몸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비현실적인 견해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이 몸을 개인의 영혼의 중요한 일부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완벽한 육체”를 숭배하다시피 하게 되며,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매체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이 파괴적인 세상적 견해를 가르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각각 다른 우리의 육체는 경이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며 기쁨과 성취감을 주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913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제임스 이 탈매지 (1862~1933) 장로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 우리는 우리의 [몸]을 고귀한 생득권의 표시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영혼의 중요한 일부로 보는 것은 후기 성도의 신학에 있어서 독특한 교리입니다.”<sup>1</sup> 이것을 이해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역시 우리 몸의 신성한 속성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영혼에 대해 계시된, 회복된 후기 성도 교리와 그 교리에서 육체가 맡고 있는 높고 필수적인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명백하고 귀한’ 진리 중 하나는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 [교리와 성약 88:15]이라는 것입니다. ...

“... 몸에 대한 착취는 (영혼에 대한 것도 포함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생명하신 그분을 착취하는 것입니다.”<sup>2</sup>

## 우리의 성: 은사

우리는 육신의 축복에 더하여 출산이라는 성스러운 힘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 내에서의 성적인 표현 행위를 인가하셨으며, 그 표현을 통해 부부가 기쁨과 사랑,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1895~1985)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관계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정당하며 신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성 그 자체는 조금도 불경스럽거나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행위를 통해서 생명 창조 과정과 사랑의 표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sup>3</sup> 그러므로 우리의 성적 욕구는 합당하게 사용될 때 놀랍고 성스러운 은사로 나타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강한 통찰력은 부모들이 이 힘의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본질에 관해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성스러운 창조의 능력, 말하자면 다른 불을 켤 수 있는 힘을 지닌 빛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유대 안에서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필멸의 육신이 잉태되고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혼이 이 생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능력은 훌륭한 것이며 이는 가족 생활을 창조하고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행복의 근원은 이 가족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지상에 태어나는 거의 모든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성스럽고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 드리건대 이 능력은 훌륭한 것입니다. ...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대부분은 이 성스러운 창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sup>4</sup>

## 외설물의 해로운 결과

이 성스러운 능력을 더럽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외설물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것의 사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은 거짓된 개념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노출은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집니다.”<sup>5</sup>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수의 전문적인 상담자까지도 외설물을 보는 것은 무해한 행위라고 변명하거나 묵인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격리된 은밀한 곳에서 보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자위행위를 변명하는 데도 동일한 합리화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외설물과 자위행위가 왜 그렇게 나쁘니까?” 아래의 네 가지 생각이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설물은 영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한 영혼을 더럽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욕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쳐다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경멸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홀런드 장로는 합리화나 이러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여기에 몸이라는 말을 포함시키십시오)을 하찮게 여길 때, 그것은 영혼을 구하고 계속되는 삶을 보장해 주는 속죄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별인 의의 아들(역주: 예수 그리스도)을 하찮게 여길 때, 이는 백열과 대낮의 햇빛보다 더 뜨겁고 성스러운 불꽃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sup>6</sup> 외설물은 몸과 영을 더럽히며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성스러운 속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설물은 우리 영혼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을 창조하셨으며 이들이 가장 잘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무엇이 도움을 주며 무엇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이 무엇을 취해야 하며, 취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외설물의 영상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해로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갖는 우리의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러나 경전과 선지자들이 주는 주님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설물은 중독이 될 수 있음.** 계속해서 외설물을 보는 것은, 특히 자위행위를 동반할 때, 습관적이 되어 중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중독은 외설물을 보면서 몸이 생성하는 화학 물질의 “급속한” 증가에 의존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삶의 도전에 부딪칠 때, 상처를 입거나, 분노나 지루함, 외로움 또는 피로와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이겨내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을 멈추기는 매우 어려우며 때로는 혼외 성관계를 부추깁니다.

**외설물은 결혼에 대한 불건전한 기대를 갖게 함.** 외설물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 몸은 실제 성관계에서와 같은 자극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몸과 마음은 어떤 성적인 이미지와 행위에 길들여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와 같은 기대는 결혼에 영향을 주어 고통과 불신, 충돌, 혼란을 야기하고 부부 사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끊임없이 덕을 쌓음**

주님은 자애와 더불어 깨끗하고 정숙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교리와 성약 121:45~46)

어떻게 “쉬지 말고” 정숙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정숙한 일상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
-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한다.
-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 경전과 양서를 읽는다.
- 훌륭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즐긴다.
- 저속하지 않은 대화를 한다.
- 기도할 때 감사를 표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한다.
- 사진, 그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물건,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게 해 주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숙한 것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을 장식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덕의 상징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육에 속한 사람의 욕구에 쉽게 굴하지 않도록 해 줄 것입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전략을 배워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그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언급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주님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더서



12:27) 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없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받고 고통 당할 것이지만 겸손하고 신앙을 유지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외설물 문제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도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으며 우리와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핑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온 영혼을 다하여 그분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독에게 사랑 어린 인도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sup>7</sup> 우리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신권 지도자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의 생활에 개입해서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담대히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따르게 하고, 사탄의 힘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강화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포함한 그들의 활동을 잘 알고 관찰하며 인간의 성의 축복과 위협에 대해 솔직하게 토론하여 경청하고 건전하게 인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부관계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토론된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갖는 성적 충동의 힘과 잠재력에 관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에 필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주

1. Conference Report, 1913년 10월, 117쪽.
2.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2001), 11, 13쪽.
3.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311쪽.
4. “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나”, *성도의 벗*, 1973년 1월호 ???쪽.
5.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1쪽.
6.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13쪽.
7.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2쪽.

## 외설물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라는 외설물과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책자로, 외설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 파괴적인 매체를 인식한다.
- 외설물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한다
- 외설물의 중독에서 벗어난다.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물품번호 00460 320)에는 또한 회개에 관한 성구와 그 밖의 교회 참고서, 몸의 신성함 및 세상적인 영향력의 극복에 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들과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설물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들과 그 책자 내용을 나눌 수 있다.



## 개척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나**는 열아홉 살 때, 스웨덴 군대에 징병되었다. 포병 통신병으로서 나는 8중대의 대원이자 선발 소대원으로 복무했다.

1월 어느 날 새벽 4시에, 장교들은 우리에게 완전 군장을 갖추고 20분 후에 밖에 집합하라고 명령했다. 전날의 활동으로 지치고 허기져 겨우 눈을 붙인 듯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병영에서 말할 수 없는 추위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 나는 그 느낌이 어땠는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커다란 군용 버스가 우리를 태우러 왔다.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을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스톡홀름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지도와 목적지를 부여 받았다.

우리는 무기, 탄약 및 다른 장비들로 완전 무장을 갖추고 스톡홀름 거리를 걸었다. 각각의 검문소에서 인질 대응, 거리전투, 터널과 건물을 통과해 질주하기, 응급조치와 같은 물리적 시험들을 거쳐야 했다. 각 시험을 거친 후에는 거의 실 틈도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갔다.

차디찬 아스팔트로 인해 발은 무감각해지고, 어깨는 무거운 장비들로 인해 쭈셨다. 그러나 나는 계속 걸었으며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 그룹은 혹한과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으나 형제들로서 계속 행군하고 있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놀란 행인들은 우리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웃었다.

나는 지치고, 춥고, 지저분해지고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여 버스를 탔다. 나는 부대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 소대와 내가 견뎌낸 시련들에 대해 생각했고 이것이 마지막에 수여될 메달 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문했다. 나는 우리 말고 누가 그날

**나**는 개척자들의 굶주림,

추위,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조롱 받고, 끝없이 걷는 등 내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겪은 시련들을 겪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갑자기, 교회 초기 개척자들의 역경과 희생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의 굶주림, 추위,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조롱 받고, 끝없이 걷는 등 내가 그날 겪었던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 큰 차이가 있다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단지 하루만 견디면 되었다는 사실이다. 개척자들은 추위와 눈, 비와 더위 속에서 진흙과 흙먼지 길을 여행했다. 그들은 안전 장비도 거의 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는 믿음만 가지고 걸었다. 개척자들은 시온을 향해 걸었다. 이는 주님께서 이 회원들을 위해 베푸실 놀라운 일을 소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갑자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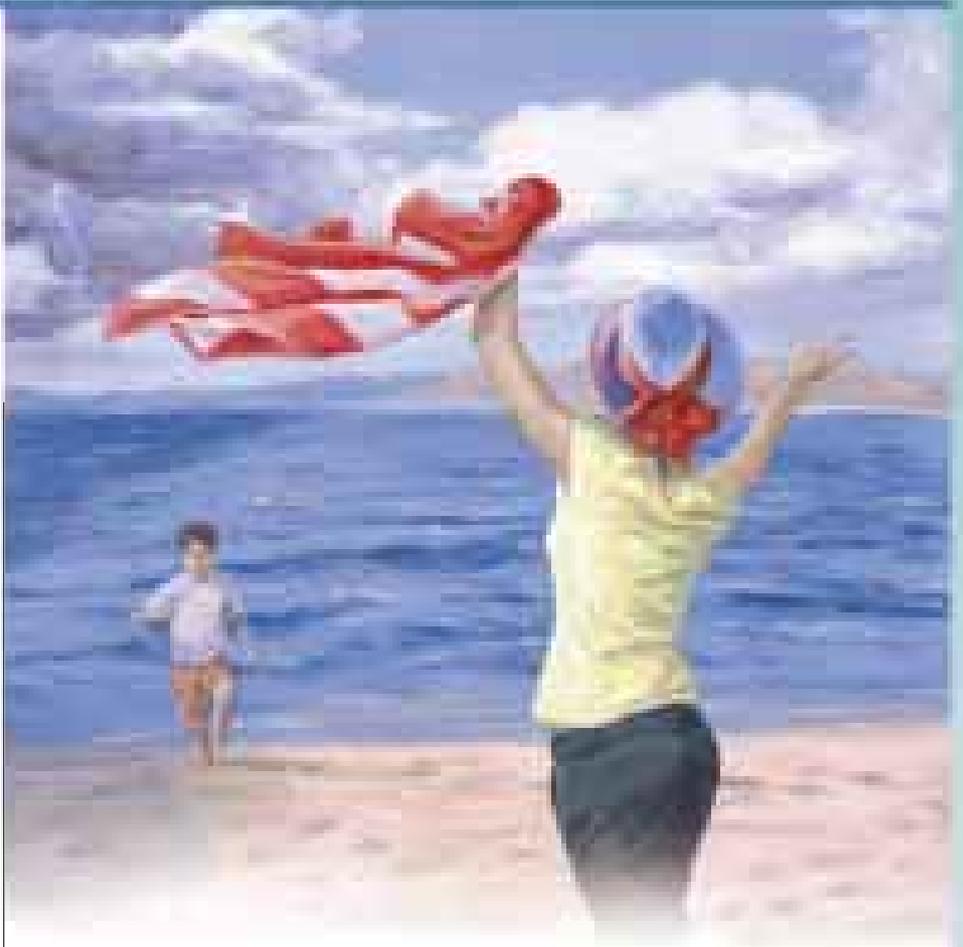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 버스에서 나는 내 자신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따뜻한 느낌과 행복감이 내 온 몸을 감쌌다. 나는 그 당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다시 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교회로 돌아오라.”는 느낌을 받았다.

부대로 돌아갔을 때,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분들을 사랑하며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요일은 마치 내가 다시 돌아갈 용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커다란 시험 같았다.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치가 있었다. 나의 가족과 다른 회원들은 내가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선교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2년 후에 케이프 베르데 프라이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을 받았다. 선교사 훈련원에 가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개척자들이 이룬 놀라운 업적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그 군대의 시험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자문해 볼 때 나는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동료 병사들과 함께 탄 버스 안에서의 훌륭한 통찰의 기회를 통해, 주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 돌아왔으며 지금 그분의 일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기에 그것은 가치가 있었다. ■



##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넬 존슨

**20**03년 6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나는 유타 로건에 있는 우리 집에서 다섯 아이들을 태우고 여동생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베어레이크로 갔다. 여동생의 집은 호수에서 몇 분 거리에 있었으며 잠시 동생의 집을 방문한 후, 나는 우리 아이들과 조카들인 케미와 에린을 호수에 데려가기로 했다.

호숫가의 물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다. 호수 쪽을 바라보니 케미가 고무도 폼 패드(역주: 스포지처럼 생겼으며 물에 뜰)를 타고 호숫가에서 50야드(46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금만 들어가도 호수의

수심은 급격히 깊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게 호숫가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소리쳤으나 그 거리에서 케미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가 매우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 영은 내게 아이들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속삭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며, 아이들은 마지못해 내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영이 내게 크고 분명한 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물 밖으로 꺼내라!” 나는 우리 뒤쪽의 산에 검은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였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물에서 나와, 번개가 치고 있어.” 나는 케미에게

**나** 는 케미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소리쳤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가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세요.”



달려갔다. 케미는 그때 호숫가에서 75야드(68미터) 쯤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우리를 덮쳤다. 여덟 살인 내 아들 델린이 물에서 다른 폼 패드를 꺼내려 했지만 바람이 돛에 몰아쳐 불 듯 폼 패드에 붙어 닳쳤고 그 바람에 아이는 땅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가능한 빨리 나는 케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바람 때문에 아이는 더 뒤로 밀려났다. 나는 그다지 수영을 잘하지 못했으며, 내 주위에 일어나는 파도를 헤치면서 힘겹게 나아갔다. 나는 아이가 폼 패드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발로 물장구를 치는 것을 보았으나 맹렬한 바람에 맞서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물살을 헤치고 나갈수록 물은 점점

깊어져서 내 어깨까지 왔다. 내 발은 곧 호수 바닥이 갑자기 가파르게 깊어지는 지점에 다다랐다. 나는 멈추어야 했으나, 케미는 여전히 20 야드(18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아이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나온 소리는, 헐떡이는 숨소리였다. 그때 나는 그 지점의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깨달았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 역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둘 다 익사할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케미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리쳤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순간, 따뜻함이 내 몸을 감쌌고 나는 힘을 되찾았다. 내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해졌다. 나는 아이에게

“케미, 손으로 노를 저어!” 하고 소리쳤다. 열 살짜리의 작은 팔이 폼 패드 앞쪽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강한 바람 속에서 상황을 바꿀 만큼 아이의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뒤에 거대한 손이 있어서 아이를 내가 뺀 손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케미를 격려했으며 마침내 우리의 손가락이 닿았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를 내게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슭에서는 모래 바람이 휘몰아쳐서 델린이 울고 있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델린과 다른 아이들, 폼 패드, 장난감들을 차 안에 실었다. 멀리서 번개로 인해 일어난 산불을 알리는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우리가 받은 충격을 가중시키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보호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목숨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느꼈다. 나는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나**는 고국인 페루에서 몇 달째 선교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산티아고를 만났다. 그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주일학교에 참석했으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 선교사 토론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자신 없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애의 대부분 동안, 산티아고는 분명하게 말하고 아름답게 노래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뇌졸중을 겪게 되었고 재활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그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웠으나 말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산티아고가 우리를 만나기로 했을 때 우리는 몹시 기뻐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는 말을 하려고 애썼으며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특별히 물몬경을 소리 내어 읽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칭찬했다.

어느 날 복음 의식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산티아고는 침례와 확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끝낸 후 눈을 반짝이며 일어서서 매우 힘들여 물었다. “장로님들, 침례를 받은 후에,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주춤했고 처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영의 인도에 의해 나는 “네, 충분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형제님의 소망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침례식에서 산티아고가 간증을 하도록 부탁 받았을 때, 그가 했던

질문을 기억했다. 주님의 어떤 약속들은 즉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산티아고의 언어 능력이 즉시 향상되지 않으면 그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후, 그는 말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걱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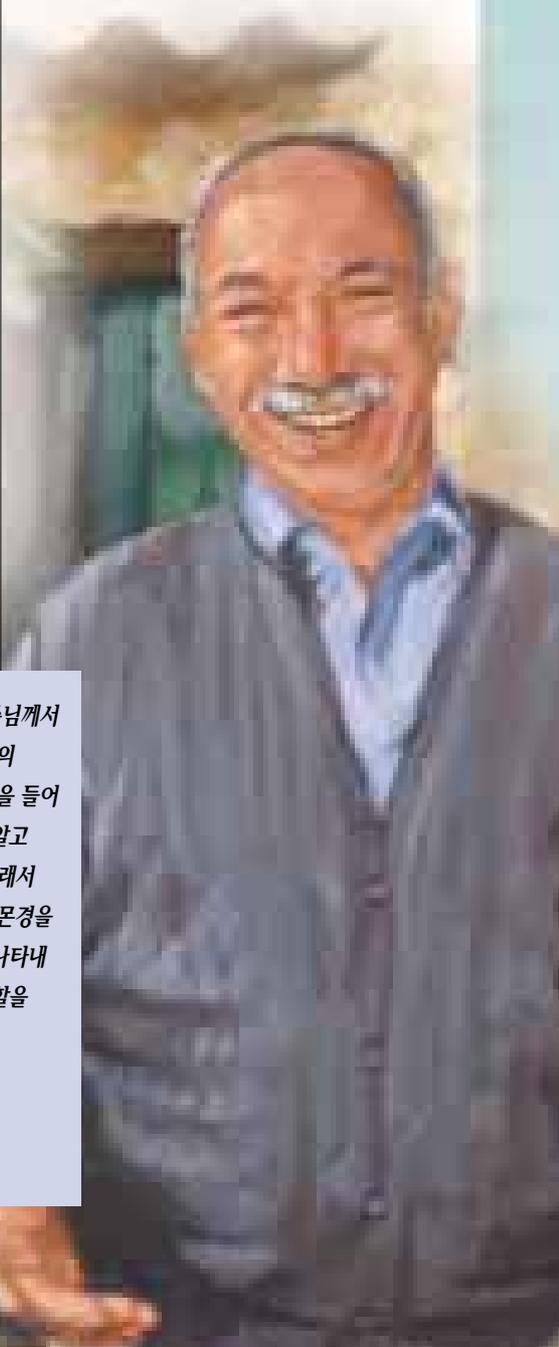
나는 곧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귀환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산티아고를 만날 수 있었다. 산티아고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동반자와 내가 그곳을 막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를 부르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산티아고였다.

그의 집에 들어 갔을 때,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분 뒤, 나는 산티아고가 거의 완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란 나는 “산티아고 형제님, 이제 말을 잘 하시는군요!” 하고 말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내어 물몬경을 읽고 의사가 추천한 운동들을 하면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주님께서는 나의 노력을 보셨고 제 목소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머지 않아 주님은 내게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날 산티아고는 내게 커다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항상 빨리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약속들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내어 물몬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 알고 계십니까?

## 7월에 일어난 일

1837년 7월 30일: 다른 침례 희망자들보다 강에 먼저 도착한 리블 디와트는 영국에서 침례 받은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 히버 시 김볼 장로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1847년 7월 24일: 브리검 영과 다른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1929년 7월 24일: 체코슬로바키아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76년 7월 9일: 일본 오카야마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 지도자를 위한 조언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지도력에 관해 훈련하시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훌륭한 대화자가 되지 않고서 굳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흔합니다.”(“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60쪽)

그러므로 가족, 반, 정원회와 함께 계획을 세울 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말할 뿐 아니라 듣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부모님과 청소년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함

아래의 경전 구절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예들을 설명하고 신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다. 각 구절을 읽고 그것에 맞는 그림과 연결한다.



1

\_\_\_ 창세기 1:1

\_\_\_ 마가복음 14: 22~24

\_\_\_ 요한복음 11:39~44

\_\_\_ 요한복음 9:1~7

\_\_\_ 제3니파이 11:21

\_\_\_ 힐라맨서 12:9~17



6



2



3



4



5

# 모범이 되는 공연

빅토리아 메레니

**형** 가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들이 성대한 무도회를 연다. 모든 교사, 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초대된다. 학생들은 댄스를 공연하고, 다른 발표들도 한다. 나는 졸업 당시 그런 발표를 하도록 부탁 받았다.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했다. 내가 연주를 위해 선택한 두 곡 중의 하나는 교회 찬송가였다. 형가리에는 회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회원이 내 연주를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무도회가 끝난 후 일요일에, 교회에서 한 자매가 기뻐하며 내게 다가와 축하를 해 주었고 그녀와 다른 교회 회원들 및 몇 명의 구도자들이 내 연주를 들었다고 말했다. 저활동 회원들 또한 무도회에 참석하여 내가

찬송가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그 자매는 내게 교회 모임이 아닌 곳에서 찬송가를 듣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얘기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참석한 사람들의 간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일 때 그 조그마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



심학: 크리스 홀커스

**내 아버지를 위한 메시지**

2006년 *리아호나* 9월호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는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님이 참으로 영감을 통해 “보살피시는 아버지”라는 메시지를 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족과 저에 관한 기사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여섯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후, 저는 저활동이 되신 아버지께 바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아버지를 강하게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트시바수 엠 이 바론, 콩고 민주 공화국

**내 인생을 위한 청사진**

어느 날 저녁, 나는 *리아호나* 2006년 1월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중에 “높은 길을 걸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실린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의 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읽는 동안, 모든 말씀 하나 하나가 제 존재 전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생 여정에서 따라야 할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폴린 에밀리 지 마벨로그, 필리핀

**선교사는 배웁니다**

선교사업을 마친 후 대학에 복학하자마자, 저는 학교 공부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수학이 전공인 저는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화학, 물리,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잊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다시 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기와 같이 선교 사업 때 배운 것들이 공부하는 동안 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을 우선 순위로 두고 선교 사업을 한 것이 기쁩니다. *리아호나* 2006년 3월호에 실린 알 제이 발 존슨의 “주님의 팀에 속함”이라는 기사는 이런 느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에리스토틀 키에르멘탱 포쿠오, 가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들을 기억함**

2006년 10월호 *리아호나*는 가장

훌륭한 출판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리아호나*가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으며, 저는 오래된 회원들이 이제 교회에 막 속했거나 속하려고 하는 이들의 걱정, 두려움, 필요 사항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월호 *리아호나*로 인해 저는 그들의 필요 사항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볼커 피 게브하르트, 독일

**진실한 설명**

저는 운 좋게도 귀 교회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덕분에, 저는 *리아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잡지는 귀 교회의 사명과 원리들에 대해 완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합니다. 그것은 귀 교회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2006년 6월호 *리아호나*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어머니인 이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엘라 알 무리스에바, 러시아

**여러분의 피드백**

가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리아호나*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이름,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 혹은 지부나 지방부명을 liahona@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목에 영어로 “Reader Survey”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구들



#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와 똑같은  
빛은 어느 어두운 날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15살의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그녀의 13살짜리 여동생 캐롤린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1833년이었습니다. 화난 폭도들은  
인디펜던스의 거리로 몰려나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인쇄기가 보관되어 있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인쇄기를  
부수고 잔해를 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종이들은 후에 불태우기 위해 마당에 모아  
두었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린은 담장 옆에  
숨어서 이 모든



**파우스트 회장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신성한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

파괴적인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는 무서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귀중한 인쇄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경전을 모아  
들고 도망쳤습니다. 폭도들 중 일부가 그들을  
보고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소녀들은 커다란 옥수수 밭으로 도망가 숨을  
죽이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계시가  
인쇄된 종이들을 커다란 옥수수 줄기 사이에  
조심스럽게 내려 놓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폭도들은 그들을 열심히 찾았으며, 이따금 꽤  
가까이 오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빛이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린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안전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했다고 믿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에게도 비치며, 롤린스 자매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이 도사릴 때에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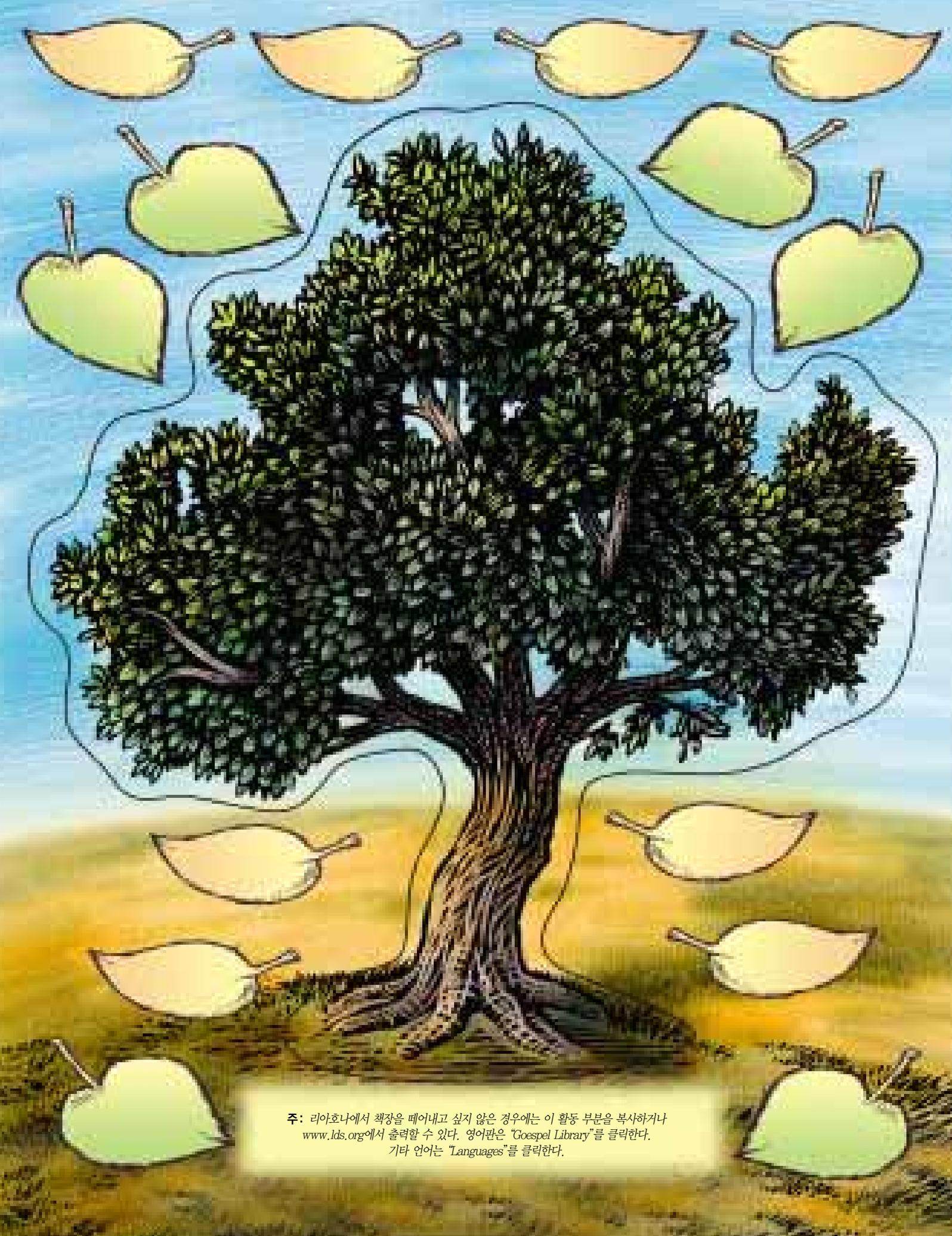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발전시킨다면  
여러분도 롤린스 자매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악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자랄 것입니다. ●

2006년 4월 연차대회 청년회 모임에서 하신 말씀



### 생각해볼 점

1. 두려웠지만,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린은 목숨을 걸고 교리와 성약의 일부가 된 계시물들을 보존했다. 오늘날 여러분은 경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2. 폭도의 상해에 맞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할 위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구주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간증은 약에 맞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출력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 가족의 신앙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엘리자베스 리스



선교사들이 잉글랜드 랭커셔에 있는 윌리엄 자비스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전도를 했고 윌리엄과 그의 아내 제인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859년에 윌리엄의 가족은 미국에 가기 위해 영국을 떠났습니다. 13주 동안 항해를 하고 오랜 기차 여행을 한 끝에, 그들은 조지 로울리 손수레 부대에 있는 다른 이주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윌리엄은 1,600 킬로미터가 넘게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제인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손수레 부대는 음식을 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윌리엄은 아내를 묻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두 명의 스웨덴 개종자가 그를 돕기 위해 함께 남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했을 때, 말을 탄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리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친절하게 행동했을 때 그가 얼마나 안심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인디언들은 그들이 끄는 손수레를 보고 웃었지만 손수레를 직접 끌면서 손수레 부대를 따라 잡을 때까지 개척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윌리엄의 손자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명 이보다 더 감사할 만한 작은 친절의 행동은 없을 것이다.” (제스톤 자비스, *A Short Sketch of the Life of William Jarvis* 참조)

7월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개척자들을 기념합니다. 개척자들은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윌리엄 자비스는 신앙을 지녔으며 그는 그의 가족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내에서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은 축복 받을 것입니다.

## 활동

친4쪽을 떼어내서 나뭇잎들을 오릅니다. 나무를 올려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세요. 친척의 이름을 각각의 나뭇잎에 쓰세요. (더 많은 나뭇잎을 그린 후 올려낼 수도 있습니다.) 나뭇잎에 풀칠을 해서 가족 나무에 붙이세요. 한쪽에는 아버지쪽 친척들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쪽의 친척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양쪽 편에 모두 속해 있으므로 나무 몸통에는 여러분 자신의 나뭇잎을 붙입니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우리는 누구인가?” 게임을 한다. 몇 명의 어린이들이 아담과 이브, 리하이와 새라이아, 요셉과 마리아 등 경전에 나오는 가족들을 대표하게 한다. 그들이 가족에 관한 예 아니오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한 어린이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당신의 가족은 물몬정에 나오니까?” 각 가족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 가족에 관해 말해 주고 이 가족이 경전 어느 부분에 나오는 지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그 가족의 장점 중에 자신의 가족이 닮기 원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는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해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일곱 번째 단락에는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의로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2. 이 함께 나누는 시간 활동 몇 주 전에,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들 가족 중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온 회원에 대해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몇 세대 동안 회원이었던 어린이와 최근 개종한 가족의 어린이들을 함께 선택한다. (대안으로는, 초등회 교재 5권 13과에 나오는 브리검 영, 팔리 피 프렛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이 150년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들의 목록을 만든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의 목록을 하나 더 만든다. 유사점을 지적한다. 복음을 통해 가족에게 오는 축복을 간증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악한 영향력에 대항함**

센트럴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젊은 선교사 김볼 장로가 기차를 타고 일리노이 주 시카고로 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것은 외설 사진으로 가득한 저속한 책이었다. 스펜서는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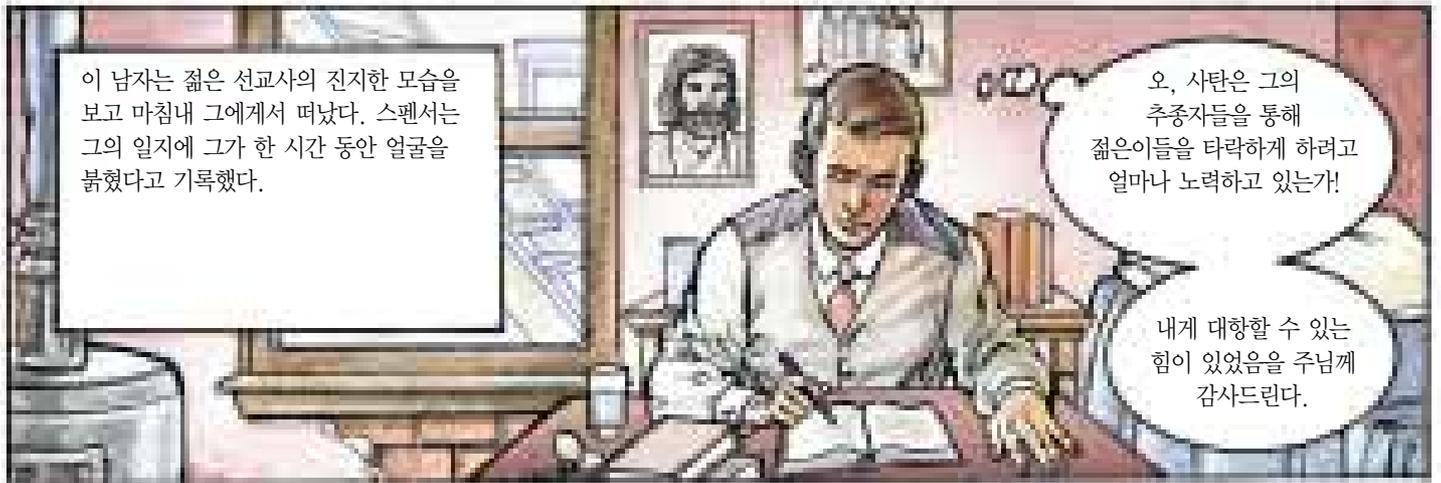
그 남자는 다른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도시로 갑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소.

안녕하시오,  
젊은 친구. 당신이 좋아할  
만한 책이 하나 있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그 책에 전혀  
관심이 없소.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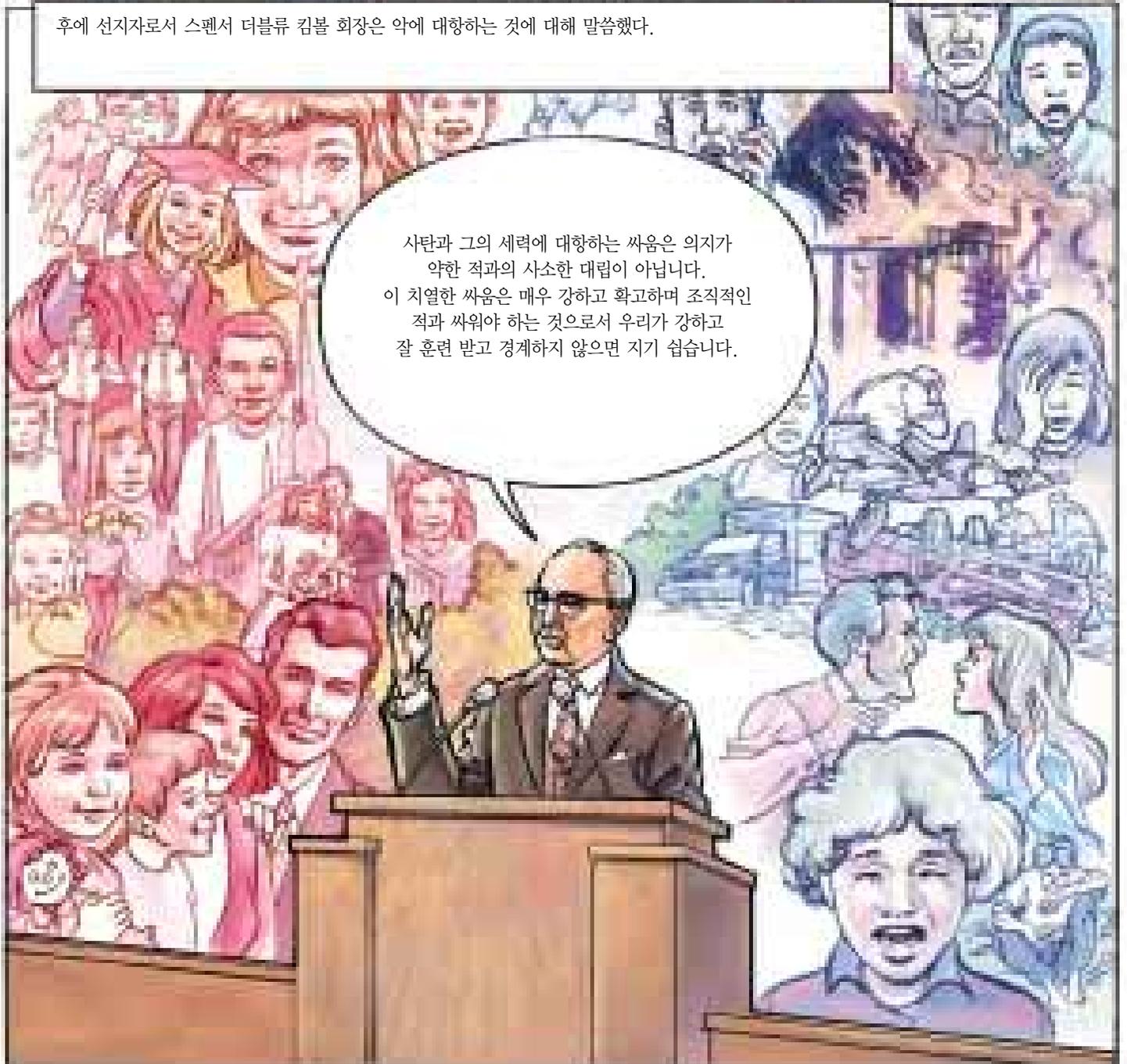
이 남자는 젊은 선교사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서 떠났다. 스펜서는 그의 일지에 그가 한 시간 동안 얼굴을 붉혔다고 기록했다.

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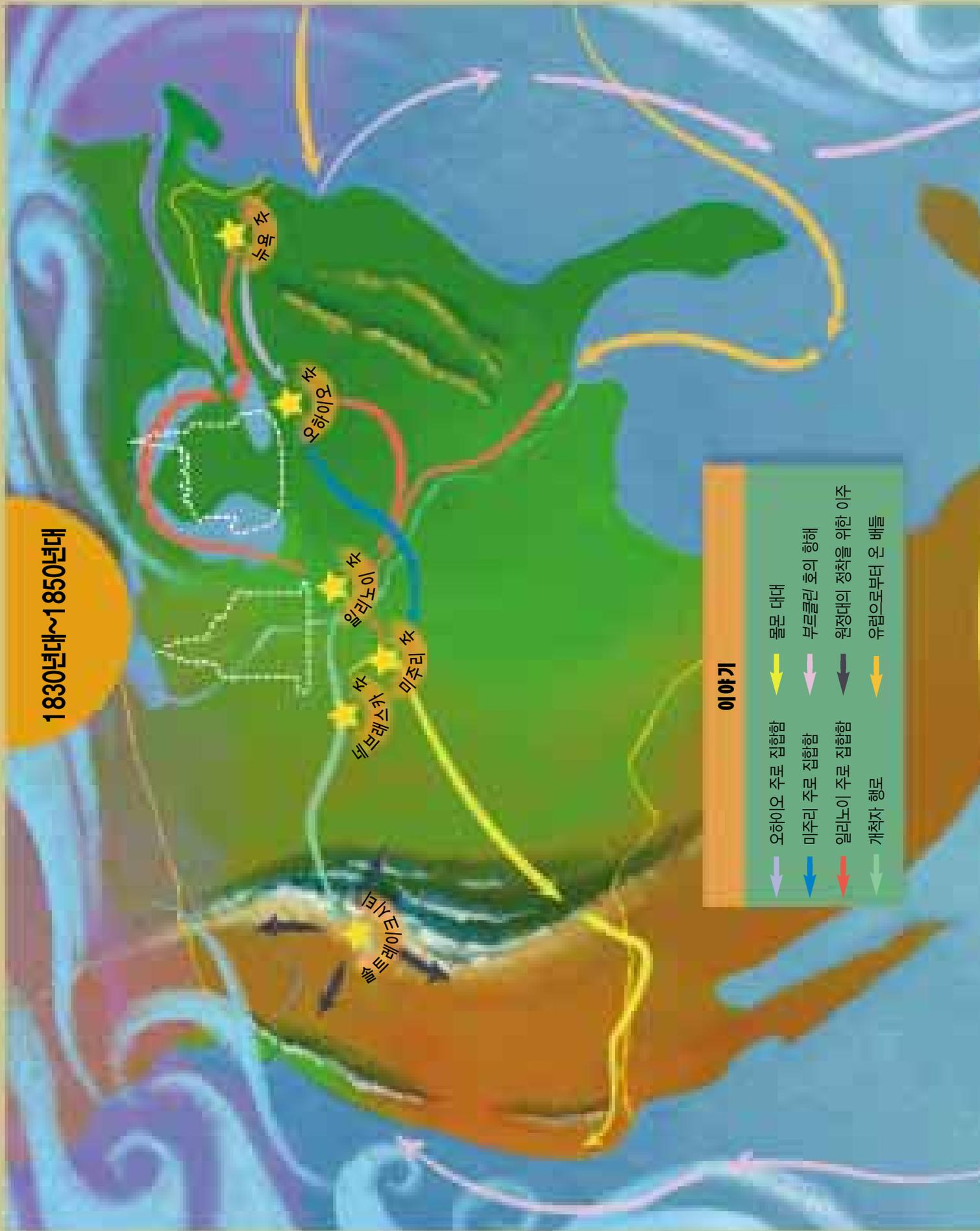
내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에 선지자로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악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은 의지가 약한 적과의 사소한 대립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매우 강하고 확고하며 조직적인 적과 싸워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강하고 잘 훈련 받고 경계하지 않으면 지기 쉽습니다.



# 1830년대~1850년대



이야기	
오하이오 주로 진함함	물문 대대
미주리 주로 진함함	부르크클린 호의 항해
일리노이 주로 진함함	원정대의 정착을 위한 이주
계척자 행로	유럽으로부터 온 배들

친12쪽에 나와 있는 활동 유의 사항 참조

# 시온으로 집합함

현재

**칼** 리토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달 동안 아팠다. 마침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칠레의 작은 마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갔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의사는 칼리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 했다.

어느날, 두 명의 젊은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에 나타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더듬거리는 스페인어로 말했다.

어머니는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따금 질문을 했다. 어머니는 젊은이들의 메시지를 즉시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말은 진리야.”라고 말씀하셨다.

병으로 인해 많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침례와 확인을 받기로 결심하셨다.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은 메치 장로가 그녀에게 침례를 베풀기로 한 작은 집회소로 갔다. 어머니는 침례 후 침례탕에서 올라오며 떠셨다.

“엄마, 추우시죠.” 칼리토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집에 가서 따뜻하게 게셔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확인을 받을 때까지 있을 거야. 복음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추위를 느낄 수 있겠니?”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받았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칼리토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처럼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네가 기도한다면, 너는 선교사들이 말한 것이 참됨을 알게 될 거야.”

장로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담배를 끊어야 했다. 칼리토는 장로들의 가르침을 듣고 평화가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께서

# 이제 됐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족은 영원해”

(어린이 노래책, 98장)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실화에 근거함

말씀하신 따뜻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아버지는 담배를 끊었다. 그 후 바로 아버지와 칼리토 모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몇 주 후에 아버지는 아론 신권을 받았다. 칼리토는 3년을 더 기다리면 신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매우 약해졌지만 항상 교회에 갔으며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방문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칼리토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칼리토가 물었다. 그는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았고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살고 싶었다.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아야 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지구가 창조되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 가족들이 인봉을 받고 영원한 승명에 이를 수 있음을 압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앤 넬슨 장로, “결혼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그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은 산티아고 성전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었다. 아버지가 버는 여분의 돈은 모두 어머니의 약을 사는 데 썼다.

그래서 어머니는 성전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성전 단지’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문가에 두었다. 어머니가 모은 동전은 점점 불어나서 마침내 가족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었다. 성전에서 그들의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빛났으며 “이제 됐다.”라고 말했다. ●



# 시온으로 집합함

**회** 복된 교회의 초기에, 회원들은 미국의 중부지역으로 모이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맨 처음 지역은 오하이오 주였고, 그 후에는 미주리 주, 다음엔 일리노이 주였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나부로부터 쫓겨난 후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한 서부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전 세계의 회원들이 그곳으로 집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넌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배, 기차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재 네브래스카 주에 있는)윈터퀴터스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대평원과 로키 산맥을 건너는 마지막 행로에서, 성도들은 마차, 손수레, 말을 타거나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 수천 명이 미국 서부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양이나 대륙을 건너 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청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개척자들은 그들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성전에 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개척자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여행도 개척자들의 서부 여행 만큼이나 힘든 영적 여행입니다.

**유의 사항:** 과거의 개척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 종이들을 잘라서 8~9쪽에 있는 지도에 붙인다. 각각의 그림을 붙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설명들을 참조한다. 도움을 주기 위해 커틀랜드와 나부 성전은 명시해 놓았다. 자신의 나라에 모인 오늘날의 개척자들을 기리기 위해, 네 가족을 전 세계에 놓는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출력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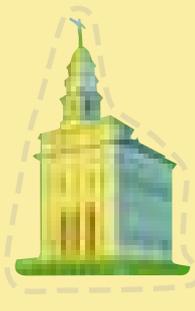
## 브루클린 호의 항해

1846년(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기 전년도)에, 220명의 후기 성도들은 브루클린 호를 타고 남미의 남쪽 끝을 돌아 캘리포니아 주로 항해했다. 5개월 간 계속된 27,000킬로미터의 항해에서 그들은 폭풍을 만났으며, 12명이 죽었다. 그들이 예르바 부에나(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일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머물렀고, 다른 이들은 유타로 갔다.



## 몰몬 대대

1846년에 미국 정부는 후기 성도 형제들에게 멕시코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돈을 벌면서 아이오와의 카운슬 블러프에서 출발하여 캘리포니아 주까지 거의 3,200킬로미터를 행군했다. 그들은 전투에 참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역사상 가장 긴 보병 행군을 마쳤다.



# 성전의 축복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 굳게 설 것이요 ...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2)

**저**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반을 솔트레이크 성전 뜰로 데려갔습니다. 뜰 안을 걷고, 아름다운 꽃들에 감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주님의 집 가까이서 느끼는 것은 멋진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전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개척자들이 그 귀중한 돌들을 위해 한 희생에 대해, 즉 성전 부지로 돌 하나를 가져오는 데 5일이나 걸린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돌들이 보이니?”라고 선생님은 물으셨습니다. “개척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돌들을 가져오는 데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렴.” 저는 조상들이 한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린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근처에 산다면, 여러분은 성전 뜰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뒤에는,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헌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열 한 개의 성전이 건축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12살이 되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성스러운 기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나 다른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성전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성전을



플 이 켈리커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헤더 커비, 교회 잡지

건축하고 있던 하청업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이 땅은 주님의 사도에 의해 헌납되었기 때문에, 성전과 이 땅은 우리에게 성스러워요. 성전은 우리가 결혼하게 될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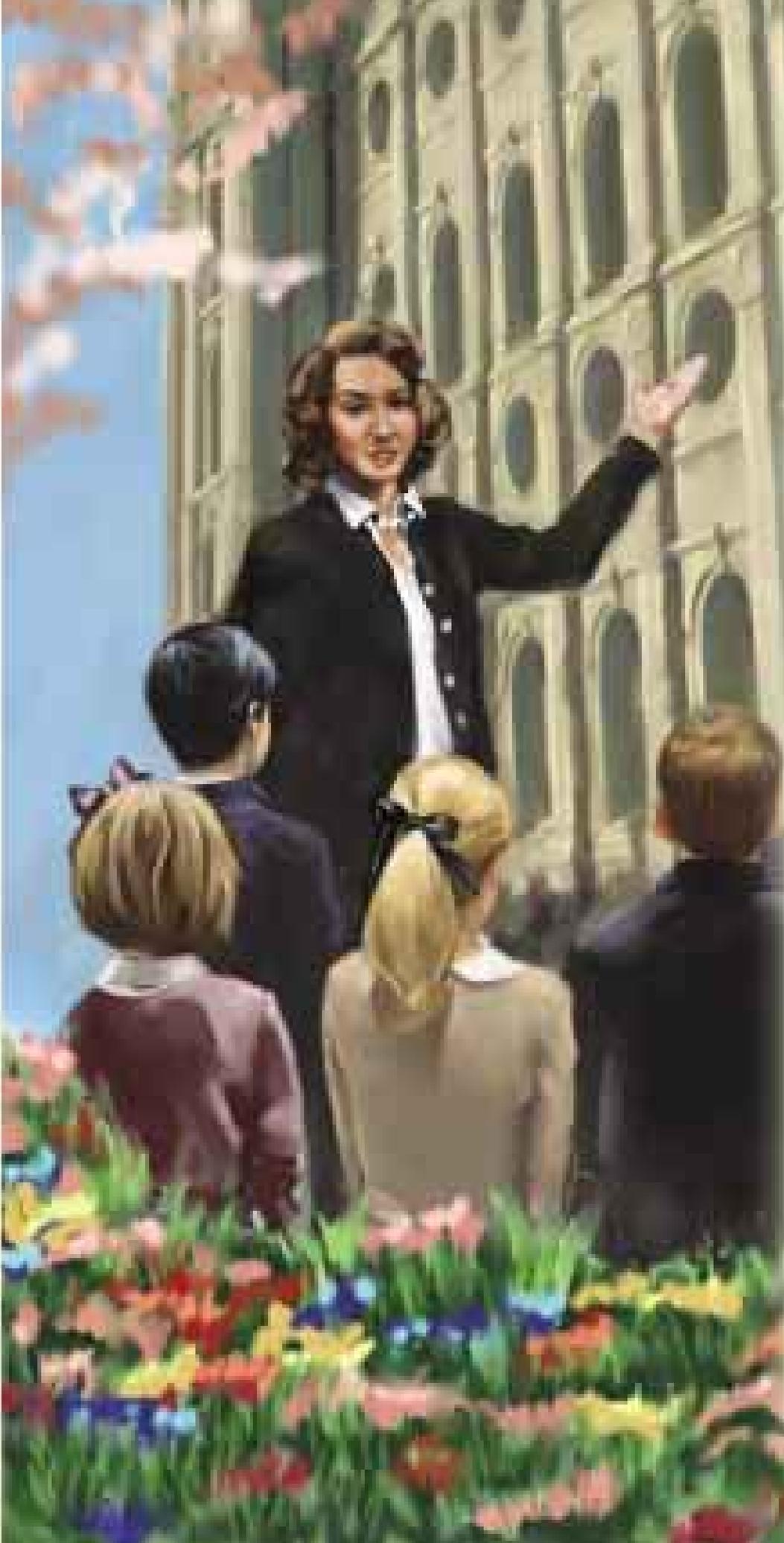
그 하청업자들은 이 사랑스러운 편지를 가져다가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와 성전을 구경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편지에서 나타난 영을 느꼈습니다.

제 삶에 있었던 또 다른 축복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가까이에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교회의 성전은 51개에서 12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저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었고 제가 성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51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17개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런 후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가 2000년 말까지 100개의 성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축 중인 17개의 성전에 추가하여 32개의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일들이



18개월 때



아주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납이 이루어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성전 부지에 깔기에 충분한  
잔디를 찾은 것도 여러 기적 중  
하나입니다.

2000년에 34개의 성전이 현납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 해에  
그렇게 많은 현납식이 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핑클리 회장님은 더  
많은 성전을 짓도록 영감  
받았습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 도와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선지자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성전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

1.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



**우리 가족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 새로운 선교부 설립으로 총 선교부 수 347에 달하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 세계 회원과 지도자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소망으로 유럽,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에 선교부가 설립되었고 일본의 네 개 선교부의 경계가 재조정되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로써 전 세계 선교부의 수는 347개가 되었다. 새로운 선교부들은 몇 달 후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다.

### 일본 선교부 경계 변경

일본의 히로시마, 나고야, 동경 선교부의 경계가 2007년 3월 초에 재조정되었다.

일본 동경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의 일부가 통합되어 일본 동경 선교부로 명명될 것이다. 경계가 재조정될 일본 동경 선교부는 동경 도시 지역과 그 주변 및 그에 속한 10개 스테이크를 집중 관리하



지도: 토마스 에스 저먼드

일본 내 일부 선교부의 경계가 변경되어 일본 동경 북 선교부와 남 선교부 대신, 일본 동경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선교부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게 된다.

일본 고베 선교부는 4개 스테이크로 이루어진 오사카-고베 지역과 교토 인근에 위치한 하나의 스테이크를 포함하게 된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 여러 개의 스테이크를 가진 세 도시 중 하나이다.

###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동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매우 크게 성장해서 이제 한 명의 선교부 회장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 회장과 선교사들은 기존 지부를 강화하고,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선교부로부터

적당한 통근 거리에 있는 다른 대도시들로 구역을 넓혀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부터 분리되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선교부들의 추가 설립으로 도네츠크 선교부의 테일 이 앤더슨 회장은 중앙 우크라이나의 지도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역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충실한 사

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충실하며 지속적인 활동률도 높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

아프리카 서 지역에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부터 분리된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가 설립되었

다. 토고와 베냉은 가나 케이프코우스트 선교부에서 가나 아크라 선교부로 소속이 바뀔 것이다.

새로운 선교부가 인근 나라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장거리 이동과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돌보고 교회 업무를 행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약 38,000 명의 회원들이 가나 아크

라, 가나 케이프코우스트,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이상 세 개의 선교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0명 정도가 프리타운 선교부 지역에 살고 있다.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와 서인도제도 선교부가 분리되면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가

세워졌다.

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는 푸에르토리코 섬, 미국 및 영국령 버진 제도, 아루바 섬, 보네르 섬, 쿠라사오 섬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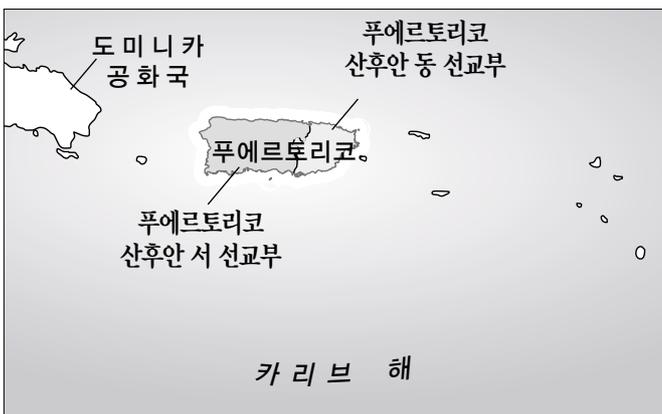
서인도제도 선교부는 소앤티리스 열도의 기타 섬들과 인접한 남미 국가들인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를 포함한다.

이 두 선교부의 분리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로부터 새로운 이름의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서 선교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선교부의 본부는 산후안이 될 것이며, 이 선교부는 푸에르토리코의 서쪽 절반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아루바 섬, 보네르 섬, 쿠라사오 섬이 포함된다.

새로운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 역시 산후안에 중심을 두고 동 푸에르토리코의 두 개의 스테이크와 한 지방부 및 영어권 국가들인 버진 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 앵귤라 섬, 세인트키츠네비스 섬, 앤티가바바다, 몬세라트산, 도미니카와 바베이도스를 관할할 것이다.

현 서인도 선교부 본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트리니다드에 위치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교부로 새롭게 명명된다. 이 선교부는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권 국가들과 제도를 포함하고 영어권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그레나다, 세인트 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단을 계속해서 관할할 것이다.

프랑스어권 지역에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세인트마틴 섬이 있다. 네덜란드어권 지역에는 세인트마틴,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사바를 포함하는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북부 제도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및 서인도제도 선교부가 분리되면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동 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수리남이 있다.

새 선교부는 장거리 이동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선교부 회장이 선교사

및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007년 2월 10일 Church News 번안

## 고정관념을 깨뜨린 교회의 다양성

**할** 램에서는 흑인 감독이 회중을 기도 로써 인도한다. 마이애미에서는 이웃들이 밝은 노란색 예배당으로 들어가 아이티어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한 교사가 중국어로 반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회중이 미국 수화로 울동을 하며 노래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한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로 첫 간증을 전한다.

대개 미국의 교회 회원들을 떠올릴 때, 유타 주의 중산층 백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 비해 이러한 광경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모습은 광범위한 문화와 경험을 반영하면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인종적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여러 매체들도 이런 다양성에 주목하여 *Philadelphia Inquirer* 지는 “대도시의 중심부를 파고드는 물몬들- 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유인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도했고, *Denver Post* 지는 “대도시 중심에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라는 글을 실었다. 또한 *Chicago Reporter* 지는 “피부색을 넘어선 종교”라는 기사를, 그리고 *New York Times* 지는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한 할렘의 물몬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종교학 및 역사

학과와 장 쉽 명예 교수는 기자들이 종종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대도시 중심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물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으면 전 ‘모든 곳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50개 이상의 후기 성도 예배가 폴란드어, 나바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포함해 총 20개의 다른 언어로 열린다.

교회 성장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자발적인 전임 선교사 프로그램에 기인하는데, 그 규모 역시 세계 최대이다. 5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140개 이상의 국가의 347개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라며 칠십인 회장단의 얼 시 텅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동시에 텅기 장로는 곧 기독교 신자 중에서 후기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독특함을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구교나 신교도 아니며 고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

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또한 국제적으로 더욱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체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1996년 2월에 달성되었다.

거의 천삼백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의 수는 조셉 스미스가 뉴욕 북부에 교회를 조직한 1830년 4월 당시 여섯 명이라는 회원 수와 비교해 보면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문화와 국가 가운데서 이뤄진 이와 같은 교회의 성장은 교회에 주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경전, 대회 보고, 위성 방송, 공과 교재, 잡지,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 그 결과 생긴 번역 시스템은 세계의 동종 최대 규모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2000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고든 비 힝클리 교회 회장은 교회의 성장이 몇몇 주된 도전과제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는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더 많은 예배당에 대한 수요에 따라 매년 수백개의 건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축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교회가 설립된 일부 국가의 몇몇 지도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지도자의 책임을 맡았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역할 모델이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는 세계 곳곳에 총관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지역 사무실을 설립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그 지역의 모국어로 그들을 훈련시킨다.

도약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교회 성도들이 단합하는 과제가 생겼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회원들 간의 다양성 증대는 단지 현상이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합이지

다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단합할 것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믿음과 행동에 있어서 불가피한 개인적인 차이를 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따라서 미국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종 우리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말할 때 하나가 됩니다.”라고 대한민국 서울의 교회 회원 고승현 형제는 말한다. ■

## 종파를 초월한 그룹, 템플 스퀘어에서 음악회 열다

**20**07년 2월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솔트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테이블의 연례 음악회에 참석한 가운데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종파 초월 주간의 절정을 축하했다.

“기도의 소명, 평화의 소명”이라는 음악회는 인간 영혼을 위한 음악적 찬사로 소개되었다. 이 음악회에서는 이슬람, 기독교, 정통 유대교를 각각 대표하는 세 명의 선창자들이 관객들에게 기도에 대한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타이코 드러머스가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연주 중이다.

메시지를 전했다. 유타의 풍부한 종교적 전통의 단면을 대표하는 일곱 단체들이 기도와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일련의 음악 순서들과 춤을 선보였다.

솔트레이크 교회 공보 위원회의 제임스 핑그리 박사는 관객들을 환영하고 이 행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폐회곡이었던 “땅 위에 평화 있게 하소서”를 언급하면서 이 곡의 작곡자들의 딸이 음악회 준비위원회에게 이 곡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음을 밝혔다. 핑그리 박사는 그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노래는 바로 이런 행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부모님은 매우 기뻐할 겁니다.”

또한 유타 주지사 존 엠 헨츠먼 2세는 종파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음악회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헨츠먼 주지사는 유타가 문화 및 종교적 다양성 속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랑과 희망은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음악인들은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랑과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의 웨슬리 벨링어스가 “La Paix”(평화)를 연주하면서 프로그램의 음악 순서를 시작했다. 그런 후 아르볼 루킹 호스는 인디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사방향 기도를 했다.

전통 힌두 의상을 입은 가야트리 자야라만은 바라타나티얌 춤인 ‘가네샤 카우투밤’을 선보였다. 통가 웨슬리언 합창단은 아니토니 마우의 지휘로 “예수여, 온 세상이 당신 아래 엎드려 절하리이다”를 불렀다.

불교의 타이코 드러머스는 스탠 히라이와 옥든 불교 사원의 지휘로 북 공연을 선보였다. 조도신수 불교도들에게 북은 부처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이슬람 사회의 이크라 아카데미에서 온 학생들은 두 곡의 이슬람 노래 “Lejla Ramie”와 “Talitha Two Moons.”를 아라비아어로 불렀다. 수많은 종교 전통들을 대표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유타 대학교의 대학생 보컬 앙상블은 “구유에서 나신 예수”<sup>1</sup>를 공연했다.

청중이 일어서서 “땅 위에 평화 있게 하소서”를 부른 후 바하이교도인 잔 세이드가 평화의 폐회 기도를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계획한 솔트

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에 감사를 표했다.

“오늘 밤은 조화, 단합, 그리고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기도, 믿음, 문화를 존중합니다.”라고 헤더 화이트블럼은 말했다.

솔트레이크 인터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개최위원회의 후원 아래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올림픽에 출전한 다양한 믿음을 가진 선수들이 모두 각자의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종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파를 초월한 존중, 이해, 그리고 올바른 인식을 장려하고자” 설립되었고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

## 교회가 멕시코 프로그램을 지원

스테파니 롱, 교회 잡지

**19** 29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현재 가족의 통합 발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DIF)으로 알려진 단체를 통해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 정부,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활동하는 DIF는 가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DIF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북 지역의 지역 복지 책임자인 루이스 카마리요는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원했다. 그와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 어린이들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많은 어린이들이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에보 레온 주에는 집 없는 어린이들

은 없어요. 그러나 학대로 고통받거나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한다.

카마리요 형제와 다른 회원들은 DIF가 지역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DIF를 지원하고자 했다. 그는 DIF의 어린이와 가족 보호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알베르토 모르톤 마르티네스 박사에게 연락하여 이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로 회원들은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모르톤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교회와 유타 주 수양부모 프로그램의 지원 덕분에 DIF와 다른 관계자들은 수양부모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에 대해 귀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몇 분의 봉사 선교사들이 유타에서 이

곳 몬테레이까지 와서 약 50명의 훈련자 지망자들에게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했다.

인도주의 서비스(Humanitarian Services)를 통해, 카마리요 형제, 모르톤 박사 및 몇몇 다른 사람들은 유타까지 와서 유타 어린이 및 가족 봉사부(Utah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 수양부모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영해 가는 기본 방법이 다루어졌고, 참가자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유타에 있는 동안, 참가자

들은 교회 복지부와 LDS 가족 서비스를 방문했다.

누에보 레온에 있는 수양부모 프로그램은 여전히 개선 중에 있지만 카마리요 형제와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들이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을 받은 후 DIF는 훈련자 지망자 모집 및 선발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 모집 및 선발 과정이 개선되기 전에 수양가정에 배치된 아이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했다.

지금까지 DIF와 함께 일한 것은 카마리요 형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DIF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좋은 일을 하려는 결심이 확고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카마리요 형제는 말한다. “이런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카마리요 형제는 수양부모 프로그램의 개시뿐만 아니라 휠체어, 의료 장비, 가구들을 기증하는 DIF와의 합동 인도주의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도왔다.



## 가족 정원 프로그램, 남아프리카의 회원들을 복돋우다

**남**아프리카 더반 스테이크 리차즈 베이 와드의 많은 가족들이 전임 선교사들과 교회 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일년 차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과일과 야채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리차즈 베이 집회소 주변의 흑인 거주지에 사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겹게 생활한다.

2006년에 이 지역에서 봉사한 부부 선교사 잭 데빗슨 장로는 에시크하위니 집회소 주변의 교회 소유 공터와 몇몇 회원들의 뛰어난 정원 기술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회 소유 공터는 현재 지역 회원들을 돕고자 정원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 제공: 나디, 켈 데이비스

떠올리게 되었다. 일년 내내 야채를 재배할 수 있고 잉여 농산물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교회는 그 당시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세 개의 작은 임시 교회 건물(예배당 하나와 두 개의 작은 교실)을 세울 부지를 매입했다. 이 건물들과 잔디밭, 꽃밭, 그리고 주차장은 부지의 삼분의 일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로 45미터 세로 80미터의 나머지 땅에는 풀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부지는 훗날 필요할지 모를 영구적 건물을 위해 남겨 두었다. 부지 주변에는 담장을 세웠다.

데이비스 장로가 연장, 관개 시설 및 다른 장비들을 사는데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고 연장과 물자들을 보관할 건물을 짓는데 6개월이 걸렸다. 기금은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서비스(LDS Humanitarian Services)의 지원과 가족 및 친구들의 넉넉한 기증으로 마련되었다.

견고한 창고 건물은 안전뿐만 아니라 부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다. 에시크하위니에는 자동차를 가진 회원들이 몇 명 없어서 이 건물이 없을 경우 농사를 지을 때 무거운 연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할 형편이었다. 부지에 남겨 두었다가는 물건들을 도난 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몇몇 경작자들은 연장을 마련할 처지가 아니다. 이곳에 세워진 건

물에서 회원들은 수동 및 전동 연장들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워드 정원 계획의 일부로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이 연장과 장비의 일부 품목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그곳에 정원을 만들도록 도울 수도 있다. 모든 연장과 전동 장비들은 소형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하다.

2006년 3월부터 남아프리카 더반 선교부 리차즈 베이 지역에 있는 열두 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이 가족 정원과 창고 건물 및 퇴비 시설을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리차즈 베이 워드의 테드 볼드윈 감독이 창고 건물의 기초 공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시멘트 작업을 도왔다.

데이비스 장로와 나머지 장로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정리하는 일에 주력했다. 본격적으로 경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관개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자갈이 제거되었다. 종종 청소년들이 와서 도왔고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 가로 6미터, 세로 10미터의 밭과 그 사방에는 1미터 폭의 길을 내기로 했다.

각각의 밭이 정리되어 경작할 준비가 되면 그에 따라 에시크하위니 지역의 가족들은 밭을 넘겨 받아 겨울 채소들을 심을 준비를 했다. 일부 가족들은 밭에 심을 묘목을 미리 가정에서 길러왔다.

6월 초에는 개인 밭의 수가 마침내 목표치인 30개에 이르렀다. 진행되는 과정 내내 지역 사회는 이 활동을 주목했다. 거의 매일 몇몇 사람들은 가는 길을 멈춰 서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대화들 중 일부는 선교사 토론으로 이어졌다. ■



남 아프리카 더반 스테이크 리차즈 베이 워드의 회원들이 이제 일 년이 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진 제공: 나디, 썸 데이비스

## 2007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7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호 친구들난의 4쪽과 5쪽에 있는 “가족의 신앙”을 참조한다.

1. 초등학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찾아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모사이야서 13장 20절을 찾게 한다. 두 그룹이 찾은 구절을 동시에 읽게 한다. 출애굽기에 나온 경전 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일이라고 설명한다. 모사이야서에서 아빈 아다이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한 단어씩 말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돕는다. 처음 몇 번은 자신의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배심제 토론을 진행한다. (“배심제 토론”,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63쪽 참조) 다양한 연령 대의 교회 회원 세 명 내지 다섯 명을 초등학교에 초대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해달라고 한다. 배심원단에게 여러분이 할 질문들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혹은 “몇 살이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들어도 됩니까?” 항상 부모님 즉, 지상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 모두를 존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부모님을 존경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2.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세 개의 정거장을 세운다. (“정거장 교실 활동”,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0쪽 참조)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정거장들을 돌게 한다. 정거장 1에서는 “사랑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102~103쪽)나 가족에 관한 다른 노래를 살펴보고 가족들에게 그 노래가 주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 정거장 2에서는 가족 중 교회에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들 조상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준다. 정거장 3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어린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저렴한 간식을 선택한다.

“가족”(영어 어린이 노래책, 194쪽,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친 11쪽)을 노래한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사랑의 기도”[영어 제목: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 (어린이 노래책 102~103) “여기서 영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어를 말합니다”와 같은 표지판을 교실 주변에 걸어 놓는다. 어린이들에게 그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라고 쓰여진 다른 표지판을 보여준다. 어떤 장소가 그런지 물어본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가정에서 사랑스런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도와 사랑을 말하는 장소를 그리도록 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어머니께서 매일 가족과 기도할 때”를 부르고 한 소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어린이는 몸짓을 통해 가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어린이는 노래의 가사 중 “기도할 때”가 나올 때 기도할 때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라는 가사에서 기도를 하고, “두려움 없애네”에서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다. 가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린이에게 “사랑의 기도”라고 적은 표지판을 가리키게 한다.

이번에는 한 소년에게 노래의 2절에 나오는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몸짓으로 가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표지판을 가리키게 한다. “여기서 사랑을 말합니다” 표지판 옆에 구주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그린 그림이 현재 자신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비키 에프 마쭈모리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비회원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버지가 신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곡은 제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서 보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저희 가족이 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표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영원한 가정을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

# 내 인생의 공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과 공과를 듣는다. 주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과 공과들은 우리 영의 자양분이 된다. 내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많은 공과와 말씀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공과에 대해 두 형제 자매가 간증을 보내왔다.

## “공과를 통해 얻은 기적”

김미경 자매, 순천 지방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누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른 기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 내용이 새롭고도 강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주일학교 공과를 위해 다시 누가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평소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그때의 느낌은 더 특별했습니다. 반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그 진리가 제 마음 속에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것을 적용해야겠다는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은 큰 아이의 자폐 증세가 심해져서 가족 모두가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무려 마흔아홉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힘겨워 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고 공과를 하면서 깨달았던 그 원리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바로 잠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적어지고 스스로도 편안해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공과를 통해 배웠던 진리를 실천하는 순간 저에게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예리하게 듣고 계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그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 “종교 교육원 수업을 통해 겸손해지다”

신동하 형제,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독신 회원 대표라는 부름이 저에게 왔을 때 저는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긴 했지만 저에게는 잘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교 교육원에서 부름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교회의 부름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목적으로 저를 신뢰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고자 할 때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친히 불러주신다는 사실은 제게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름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감사드릴 일이었습니다. 그 수업 후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부름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실히 부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후에 기도의 응답이 왔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님과 같이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한 형제 자매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들었던 그 수업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끊임없이 연마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

## “나의 동료 종들이 너희에게”

1829년 5월 열다섯째 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사스케하나 강 인근 숲을 거닐었다. 5월 햇살은 찬연했으며 서서히 청록색을 띠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금판에 언급되어 있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대해 알고자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줄기 빛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동료 종들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바야흐로 그 옛날 거두어졌던 신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이들 열쇠가 부여된 사건은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권이며, 인류의 구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론 신권 형제가 주님의 신권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성찬을 전달하고, 침례를 주고, 남몰래 봉사하는 아론 신권 형제들은 침례 요한의 동료요, 조셉과 올리버의 동료들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는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모임이 열렸다.

### 마산 스테이크

“나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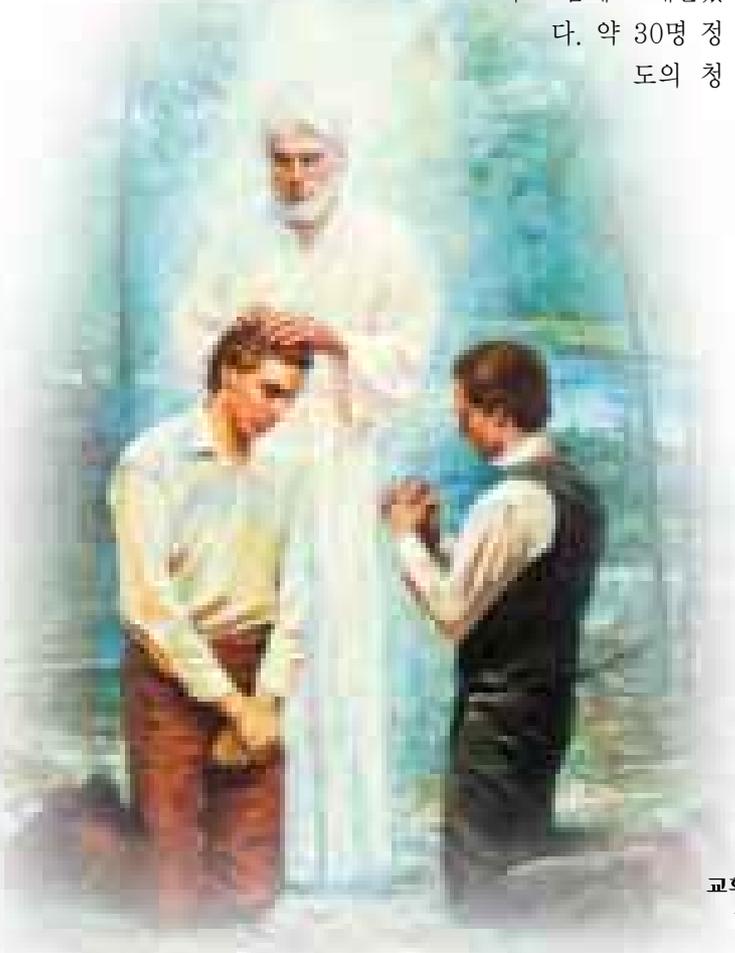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2007년 5월 19일 마산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청남뿐 아니라 청년도 함께 초대받았다. 약 30명 정도의 청

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구지원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적성과 미래의 직업관’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이에 부합하는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 와드와 지부별 청소년들이 아론 신권의 목적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 편지를 보면서 모임을 마쳤다.

### 부산 스테이크

부산 스테이크의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은 스카웃 선서식과 함께 열렸다. 2007년 5월 12일, 수정 와드에서 있었던 2007년 LDS 지구연합회 합동 선서식 및 아론신권 회복 기념 모임에는 청남 40명과 청소년 지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LDS 지구연합회발족 10년을 기념하고, 올해 신입 대원이 되는 청남들의 스카웃 선서식을 진행했다. 매듭법과 구급법, 신호법과 스카웃 예절,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졌다. 예배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에서는 여러 말씀들을 들었다. 이계원 금정 와드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인 우일암 회장은 “청남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을 베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신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다.



## 서울 스테이크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신당 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 및 표준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배동철 스테이크 회장이 감리했다. 선교 사업이란 주제로 준비된 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정거장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정거장 활동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다섯 개의 정거장으로 나누고 그곳에서 각각 활동을 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영적인 방은 두 명이 서로 동반자가 되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구도자 역을 맡은 고문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간증을 나누는 활동이었다. 신체적인 방은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활동이었다. 또한 정서적인 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재정적인 방은 선교 사업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알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계산해보는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게임방에서는 보드 게임을 통해서 표준에 맞는 행동과 그른 행동을 배울 수 있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거장 활동을 통해서 선교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은 각 와드별로 진행되었다. 모임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각 와드별로 정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론 신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 중에 상계 와드에서는 5월 26일 오후 4시에 모임이 있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고 교회 지침에 따른 청남, 청녀의



사진 촬영: 배민정 형제

선교 사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

활동 상황 및 청소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회와 복음에 충실하면 서도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기를 잘 보내기 위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현재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매듭법을 배우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스카우트 대원들.

##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서울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5월 12일 토요일 오후, 송파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복 기념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정문영 회장과 정운채 형제는 아론 신권 회복 기념모임의 목적은 신권의 정의와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남들이 합당하게 아론 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각 와드, 그리고 지부의 청남 회장들의 노력으로 청남들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의 말도 함께 했다.

이날 정운채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활동을 맡은 정준택 형제의 도전 골든벨은 각 와드와 지부의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비록 이날 모임은 짧은 시간이었으나 아론 신권의 중요성을 배우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청남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서로의 부족함과 장점을 나눌 수 있는 합동 모임을 계속할 예정이며, 청남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이인주 기자, 이지은 기자, 이진희 기자, 기사 제공 : 김중욱 형제, 강현오 형제〉

# 한 뼉 더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통. 최근에 있었던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 지역의 대대적인 지역 개편을 이보다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합병이 공식 발표 되었다. 1981년 부산 서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나눠게 된 부산 지역이 19년 만에 다시 부산 스테이크로 합쳐진 것이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산 지역 합병과 동시에 기존에 부산 스테이크



모임 후 함께 자리한役員들. 좌측부터,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안경일 회장, 제2보좌 우일안 회장, 이순철 회장, 전 부산 서 지방부 강신용 회장, 지역철심인 이용환 장로,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

산하였던 울산 지역이 분리되어 지방부로 재조직되었다. 새롭게 조직된 울산 지방부에는 경주와 포항도 포함되었다. 두 지역은 대구 스테이크 소속이었다가 분리 된 것이다. 합병과 분리, 그리고 재조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지역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변화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석별의 아쉬움이 교차했다. 부산 지역 합병 공식 발표를 위해 5월 27일 부산 스테이크에서 있었던 특별 모임에서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은 그 모든 변화와 감정의 교차를 성장통으로 설명했다. 송 회장은 무릎이 아프다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보니, 성장통이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다. “저희 아들은 그 후 정말로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성장통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진통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이 지역이 더 성장하기 위해 겪는 변화인 것입니다.”

비단 송평중 회장뿐 아니라 이날 모임의 연사들은 모두 감사와 사랑을 표하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 서 지방부의 마지막 회장으로 봉사한 강신용 형제는 지난 시간동안 열심히 봉사한 지부役員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했고, 부산 스테이크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함께 우정을 나눌 것을 당부했다. 이순철 부산 스테이크 회장은 부산 서 지방부 회원들과 울산 지역 회원들에게 “환영 말씀과 작별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라는 말로 반가움과 아쉬움을 대신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스테이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가 되었으니 이곳에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야 한다.”라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이용환 장로는 지금의 변화가 결코 단기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신 응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개의 스테이크로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또 다른 특별 모임이 포항에서 있었다. 대구 스테이크에서 경주와 포항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지지를 묻는 모임이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이별의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배덕수 대구 스테이크 회장 또한 말씀을 통해 “딸을 시집보내는 친정아버지의 심정처럼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사랑 많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성장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라고 전했다.

6월 3일에는 울산 지방부 대회가 있었다. 1982년 당시 울산 지방부가 부산과 대구 산하로 통합된 후로 실로 18년만의 지방부 대회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신성, 호계, 방어진 등 울산 각 지역의 회원들과 새로 편입된 포항과 경주의 회원들까지 참석하여 대회장인 호계 와드를 가득 메웠다.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 지방부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오랫동안



지방부 대회가 끝나고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촬영: 문진진 행회

## 부산 지역 및 울산, 대구 지역 역사

- 1953년: 구 부산역 옆에 있었던 부산 공회당에서 매주 예배를 봄(미군 후기 성도, 김호직 박사 가족, 젊은 학생들).
- 1956년: 부산 지부 조직.
- 1962년 7월 17일: 대구 중앙 지부 조직.
- 1963년 10월: 부산 동구 지부 조직.
- 1970년 1월 25일: 남부 지방부에서 영남, 호남 지방부로 분리.
- 1974년 9월 22일: 영남 지방부에서 대구 지방부 분리.
- 1976년: 마산 지방부 분리.
- 1976년 3월 11일: 네 명의 선교사가 울산에서 선교 사업 시작.
- 1976년 8월 22일: 대구 지방부에서 포항 지부 조직.
- 1979년 9월 6일: 부산 스테이크 조직.
- 1979년 12월: 경주 지역 선교 활동 재개.
- 1982년 4월 25일: 울산 지방부가 부산 스테이크와 대구 지방부 산하로 통합됨.
- 1983년 5월 8일: 대구 스테이크 조직.
- 1986년 6월 1일: 부산 서 스테이크 조직.
- 1995년 3월: 부산 서 스테이크에서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로 분리.
- 2007년 5월: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가 통합됨. 울산이 분리 되어 울산 지방부가 됨. 대구 스테이크에서 경주 지부와 포항 지부가 분리 되어 울산 지방부와 통합됨.



사진 촬영: 문진성 형제

포항과 경주 지부가 대구 스테이크에서 분리 되는 것을 알리는 모임 후, 마지막으로 한 자리에 모인 회원들.

발전하여 부산, 대구 지역에 성전이 건립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지런함과 정직, 충실한 십일조,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다.

세 지역에서 있었던 특별 모임이 끝난 후,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회원들은 순수한 신앙과 모범을 통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오른손을 들어 지지를 표했다. 교회의 태동을 알린 부산을 비롯하여 선교사업의 힘이 넘치는 울산, 그리고 강한 간증을 가진 회원들이 있는 대구는 한국 교회에 있어 튼튼한 뿌리나 다름없다. 그 뿌리가 이제 한 뼘 더 성장하려한다. 변화라는 성장통을 겪은 뒤 한층 더 크고 단단하게 변해 있을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 지역에 새로운 스테이크들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는 것도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이인주 기자. 기사제공: 문진성 형제〉

사진 촬영: 이인주 기자

교회 지도자로 봉사해온 강형구 형제가 지방부 회장으로 부름 받았고, 추동수 형제와 구자길 형제가 각각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강형구 회장은 이날 찬송가로 부른 세 곡의 제목으로 회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대신했다. “복음이 지닌 평화는, 풍성한 주 은혜로, 약한 자여 겸손하라.”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은 울산 지방부가

**부산 지역 통합 및 울산 지역 분리 특별 모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회원들**



2007년 7월호

# 사랑 나눔 음악회



2007년 5월 19일, 부산시 금정구에 자리 잡고 있는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은 2007 부산 스테이크 예술제를 위해 악기를 조율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소리로 분주했다. 공연 준비가 끝나고 예술제가 시작된 건 저녁 6시, 이미 많은 회원들이 300석을 가득 메웠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로 힘차게 문을 연 예술제는 마지막 순서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달려갔다. 사물놀이에 뒤이어, 자신보다 큰 악기를 들고 등장한 어린이 앙상블은 귀엽고 깜찍한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고, 형제 중창단과 자매 중창단은 트로트를 재즈로 바꿔 부르는 재기 넘치는 무대로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금정 와드에서 태동한 관현악단 아마빌레 앙상블은 섬세하고 풍부한 선율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초청 인사들의 무대는 예술제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인 양산 학춤과 소프라노 엄말영 자매의 독창, 그리고 테너 김신환 형제의 독창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선교사 밴드의 노래는 관객을 열광시켰다. 마지막 순서인 남산놀이마당 공연단의 풍물놀이에 맞춰 모든 관객들이 박수 치고 어깨를 들썩이는 가운데 예술제는 막을 내렸다. 이날 모임은 부산 지역과 울산 지역의 분리 전 마지막 모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 천안 와드 헌납식



2007년 4월 22일, 성찬식을 끝낸 백이십여 명의 성도가 다시 천안 와드에 모였다. 천안 와드 헌납식을 위해서였다. 1995년 현 위치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래 천안 와드는 그동안 두 번의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대지 322.47평에 건축면적 147.28평의 새로운 천안 와드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비

는 물론 화장실도 각 층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신건축공법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최종산 천안 와드 감독은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은 와드의 특성 상, 활동에 적절한 시설이 천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꿈꿔왔고, 이제 더 많은 회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신앙을 행사하고, 가정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큰 축복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축원하였다.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은 우리가 현재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거듭남으로써 더욱 겸손해지고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듯이, 이 건물 또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다시 거듭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윤환 장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헌납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하며 교회에 대한 봉사과 시간 활용, 그리고 재능 활용과 물질적 재산의 사용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헌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납식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천안 와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헌납식을 더욱 빛냈다.

*(기사 제공: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

**공보위원회,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를 방문**

공보위원회는 2007년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모임을 가졌다. 제일회장단의 축하 편지와 물론경 합본을 전달하기 위해 약속된 이 모임에는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와 공보위원장인 최석구 형제, 공보 선 교사인 마우어 부부와 자리를 주선한 주덕 영 형제가 함께했다.

**대구 스테이크 <조경희 기자>**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2007년 4월 15일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이상교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대구 스테이크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모임이 있었다.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2007 청소년 체육 대회** 2007년 4월 14

일 토요일, 대전 성룡 초등학교 운동장에 스테이크 문명규 회장의 감리로 60여명의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였다.

**전반기 대전 스테이크대회** 2007년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설양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김미남 형제와 함께하는 노년의 모임** 2007년 5월 20일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김미남 형제와 함께 하는 노년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원리는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의 부름과 임무를 통해 봉사하는"(*교회 지침서, 제2권, 255쪽*)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이라헤물라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앨마서 6:6)습니다. 이 성구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주 함께 모였으며) 또한 모이는 이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주 함께 모이라는 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위에 언급된 원리의 첫 부분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함께 모이는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성찬을 취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가 앉아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영이 함께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들 중의 몇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 한 설교에서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 행전 20:35)

우리가 감독으로부터 부름과 임무 지명을 받을 때,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하며, 우리 자신을 줍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교리와 성약 50:22)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무엇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할 때, 교화되기를 기원합니다. ■

## 마산 스테이크

**초등학교 신앙개조 암송의 날** 2007년 3월 31일 토요일 마산스테이크 센터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개조 암송 대회가 열렸다.

(기사 제공: 김은미 자매)

**체육 대회** 2007년 5월 24일 진해 공설 운동장에서 마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있었다. 김충석 스테이크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체육 대회는 우려와는 달리 맑은 날씨 속에 즐겁게 진행됐다.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장효진 기자>

**체육 대회** 2007년 5월 24일에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에서 체육 대회가 열렸다. 성일 중학교에서 모임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체육대회는 비가 오는 관계로 동대문 와드에서 열리게 되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금촌 지부 와드로 승격** 2007년 4월 22일 금촌 지부가 금촌 와드로 승격되며 첫 번째 와드 대회를 가졌다.

##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최상혁 형제 초청 특별모임** 2007년 4월 29일 안식일 저녁에 서울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미우주항공공국에서 근무하는 최상혁 형제를 초청하여 특별 모임을 가졌다.

##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초등학교 활동의 날** 2007년 5월 12일,



부에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일 형제 가족을 초청 특별 모임을 가졌다.

##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청년 독신 무도회** 2007년 5월 5일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에서 7개 지역 청년 독신들이 함께한 무도회가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마산 스테이크와 순천, 부산 서 지방부 청년 독신 120여명이 모였다.

## 청주 스테이크

**중부 종교 교육원 교육의 날 행사** 2007년 4월 29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영어 성경의 역사-흥정역 성경을 갖기까지”라는 주제로 김대연 형제를 연사로 초빙하여 중부 종교 교육원 교육의 날 특강을 가졌다.

(기사 제공: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 회장)



**백년이 넘는 라틴어 성경, 흥정역 성경, 흥정역 성경 초판 영인본, 1백년이 넘는 물문경 및 교리와 성약의 전시돼 있는 모습.**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감독: 하봉채(전임: 정상조)

###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감독: 김치원(전임: 홍세일)

###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가 부산 스테이크에 통합

### 울산 지방부

울산 지방부 창설

지방부 회장: 강형구

제1보좌: 추동수

제2보좌: 구자길

경주 지부(대구 스테이크) → 경주 지부

방어진 와드(부산 스테이크) → 방어진 지부

신정 와드(부산 스테이크) → 신정 지부

포항 지부(대구 스테이크) → 포항 지부

호계 와드(부산 스테이크) → 호계 지부

방어진 지부 회장: 전덕민(전임: 구자길)

호계 지부 회장: 김재균(전임: 추동수)

재능 발표 과정을 통해 신앙과 재능을 키운다는 목표로 지방부 초등학교 활동의 날 모임을 가졌다.

**하일 형제 초청 특별 모임** 2007년 4월 21일 6시 순천 지방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정엽 장로**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캘리포니아  
오를랜드 선교부



**송수정 자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템플 스퀘어 선교부